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가 직거래)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9월 27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중생들의 본성은 부처님의 성품과 같이 맑고 깨끗하다.'
〈열반경〉

법회 안내

광명 금강정사 (02)893-2700
일반신도법회 일 오전10시30분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7시
고등부법회 매주 초 오후5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법안정사 (02)646-4975
가족법회 매월 첫째 토 오후7시
일반신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심보사 (02)352-6404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청소년법회 매주 일 오후1시

관왕 보광사 (0667)783-1192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격주 토 오후2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7시

광주 증심사 (062)226-0107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5일~18일(음)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마하연 포교원(032)513-5328
일요가족법회 일 오전10시30분
청년법회 매주 수 오후7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30분

고성 옥천사 (0556)72-0100
미타회법회 매월 15일 오전11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정오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동해 심락사(0394)31-4082
일반신도법회 매월 22일 오전11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절 땅이 줄고있다"

3개월새 토지수용 12건… '대토' 원칙도 흔들

종합적 토지관리 대책 시급

절 땅이 줄고 있다. 토지구획 정리, 도로편입등 정부의 토지수용이 늘고 있으나 대토(代土)는 갈수록 줄고 있다. 이뿐 아니라 종토세용 토지 강매처분이나 불법 사찰토지매매 등으로 인한 절 땅의 손실도 적지 않아 절 땅을 보존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토지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의 토지수용 지난 19일 제 118회 조계종 임시중앙종회에서 보고된 바로는 6. 21~9. 16. 3개월동안 정부의 토지수용으로 인해 처분 승인받은 곳은 총 12건. 이중 대토된 곳은 3곳이고 나머지 9곳의 처분금액은 사찰불사에 쓰여졌다. 또한 지난 4월1일부터 6월18일까지 처분 승인된 사찰토지 총 7건중 대토원칙을 지킨 곳은 용주사 등 3곳 뿐이다. 조계종의 토지처분 승인은 1년에 평균 40여건. 조계종은 토지 처분시 대토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갈수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종단의 한 관계자는 "개사찰에서 대토하기 어려우면 교구나 종단 차원에서 모아 대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종토세 납부 종토세용으로 토지가 강매처분돼 충격을 주고 있다. 통도사 말사인 울산 월봉사는 지난 8월 사찰 땅의 일부가 대지로 전환됨에 따른 종토세를 토지로써 납부했다. 성업공사가 사찰 땅 2백여평을 공매처분하고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사찰측에 가져가라고 통고했다는 것. 월동사처럼 종토세, 토초세용 토지강매처분도 귀중한 삼보정재 유실에 한 몫 하고 있다.

불법매각 지난 6월 총무원미승인재산처분 및 임대조사특위 보고에 따르면 영주암 흥천사 흥룡사 등, 토지 불법매각으로 인한 종단의 재산 손실도 여전한 것으로 밝혀져 철저한 감사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처가 요구되고 있다. 88년 전사법 시행이후 불법 재산 처분으로 손실된 토지는 60여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말까지 주인없는 땅 14억4백만㎡를 국유화하기로 함에 따라 종단에서는 6·25등 토지대장 손실로 망실한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마련도 절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경숙 기자〉



부처님 일어서는 날 민중의 꿈도…
화순 운주사 천불천탑의 천년된 꿈이 광주민중의 민주열기로 피어나 마침내 이 세상은 청정불국토가 될 것임을 한 예술가가 외치고 있다. 5·18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난 20일 개막된 광주 비엔날레에 천불천탑의 꿈과 광주 민주항쟁을 결합시킨 홍성담씨의 설치미술이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회제작 '千人'의 일부.

'재정실사위' 등 구성
조계종 118회 종회

조계종 제 118회 임시중앙종회가 지난 19일 열려 △종무보고 △각 상임분과위 및 각종 위원회 업무활동 보고 △96년 예산편성을 위한 재정실사위원회 구성 △소확세 마을 인수 등 13개 안건을 상정, 토의에 들어갔다 (21일 현재).

19일~21일까지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종무보고를 들은 의원들은 사찰운영위원회구성 추진관계, 주지임명과 관련한 금품수수, 직영사찰 관리현황, 종토세·토초세 대처방안, 분담금미·체납금 회수 방안 등에 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조계종 사상 종무보고 및 질의 응답이 3일동안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주상보〉

우리는 불자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현대불교신문사

'우리는 불자'
차량용 스티커 제작

'우리는 불자가정' 스티커 보급운동이 한폭 더 넓어졌습니다.

20만장을 넘긴 '불자가정' 스티커가 계속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차량용 스티커 '우리는 불자,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가 새로 제작됐습니다. 차량에 부착하는 만큼 시각적 효과가 뚜렷하게 디자인된 이 스티커도 원하시는 불자님이나 사찰 단체를 대상으로 무료 보급합니다.

'우리는 불자'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불자로서의 올곧은 삶을 살아가는 불자의 자랑이며 교통질서 지키기에 앞장서는 불자 운전자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차량마다 '우리는 불자' 스티커를 붙입시다.

스티커 붙이기 동참자 △부산 금강법회 △국청사(주지 승만) △서울 일심회 △대승사(주지 노휴스님) △군포불교신도회(회장 오해균) △용마산 성운사 관음회 △전북 승련사 △배재균 △김영희 △이산경 △이원순 △이한철 △박상희 △이동광 △한명덕 △김정란 △승미호 △김계수 △이면우 △김성문 △정성임 △이종복 △이미경 △강명호 △김용철 △김명자 △이상경 △정금옥 △이종복 △김정호 △전용식 △정태용 (무순)

동참금 입금계좌 안내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 금 주 현대불교신문
전 화 737-8881, 722-4162
팩 시 737-0698

현대불교 · 한국불교중단협의회 · 대한불교진흥원

매월 1일 '보시·지계의 날'로

재가회의, 청소년교육·전국순회법회 추진

한국불교 재가회의(상임의장 서돈각)는 매월 1일을 보시·지계의 날로 정하고 재가불자의 실천운동으로 전개키로 했다.

재가회의는 지난 16~17일 양일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재가회의,무엇을 할것인가'란 주제의 대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실천사업을 확정했다.

재가회의가 결치기로한 보시·지계 실천운동은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전문가들이 내놓은 재가불자 실천강령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70여명의 회원이 참석 △사회인을 위한 불교교육 △청소년포교의 활성화 △환경과 사회윤리의 제 문제 △사회복지 활동의 강화 △정치 경제 및 통일의 문제를 소주제로 하는 분과별 토론을 펼쳤다. 〈주제발표요지 3면〉

재가회의는 분과별 토론을 통해 대외사업으로 경주고속전철 취소운동과 지계·보시운동, 청소년교육사업, 지역별 순회강연회를 펼치기로 했다.

재가회의는 또한 조직강화를 위해 내부사업으로 지역별 월례회 개최, 회보발행, 남북수재민돕기 모금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재가회의는 이달말 구체적 실천사항과 강령을 확정,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목어

"지금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엿듣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거나 누구와 대화를 나누다 이런 말을 듣게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던 말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낮출 것이다. 비밀스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도청당한다는 것은 불쾌한 일이다. 그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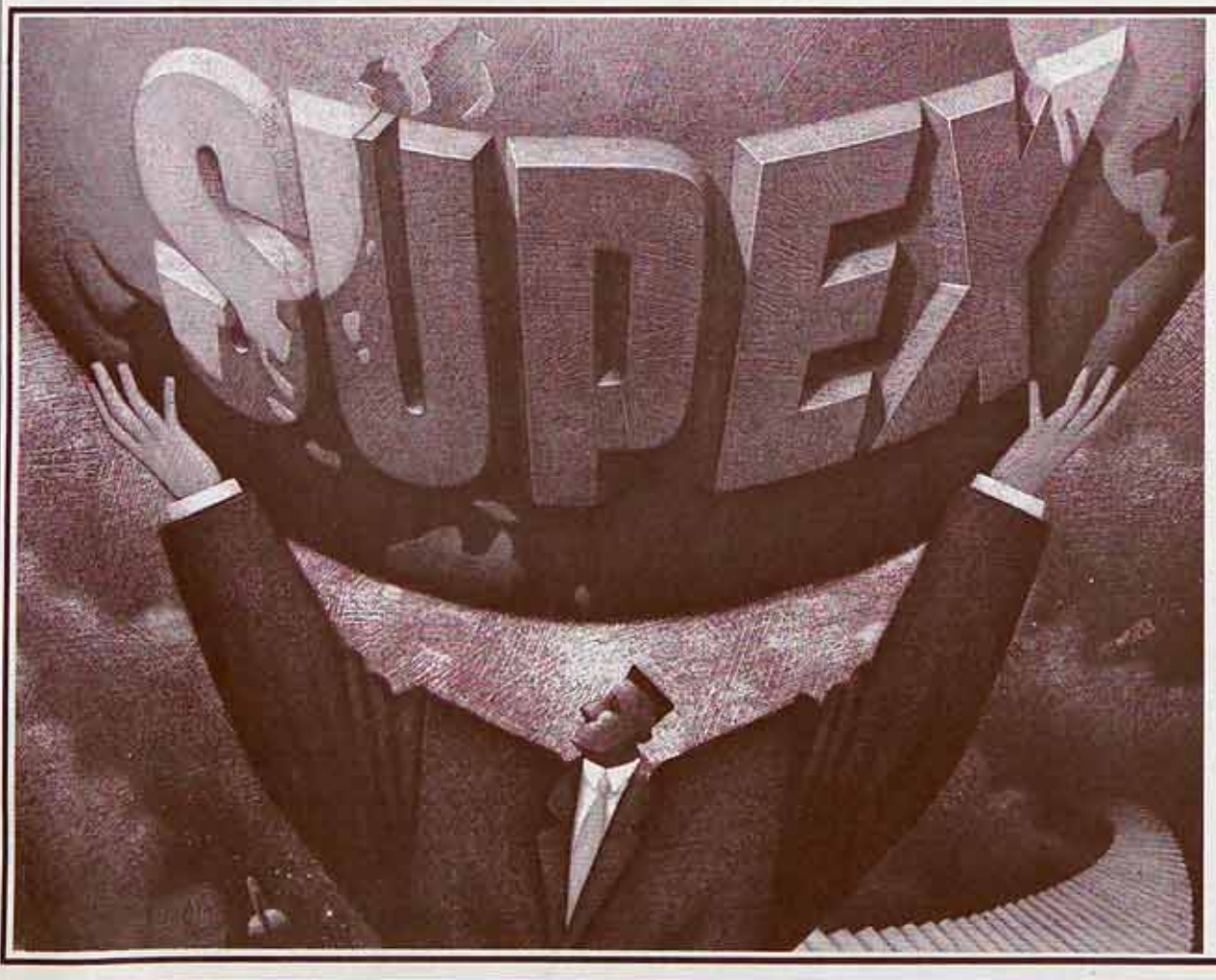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어지간한 생활 정보는 거의 노출돼 있는 상태다. 신용카드·보험회사등에 기입된 개인정보가 유출돼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각종 안내 우편물이 배달되고 생일카드까지 받기도 한다. 기분이 좋기보다는 오히려 불안할 수도 있다. 거기다 사생활 도청업자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개개인의 사생활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최근 인천의 가나안 심부름센터는 사생활 도청 전문회사 역할을 하다 적발됐다. 또 서울에서는 '도청'이란 간판을 버젓이 내건 전문도청설비업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간단한 도청장치에 의해 개인정보가 손쉽게 누설되는 사회. 생각만 해도 섬뜩하다. 남의 사생활을 넘겨다 보고, 경쟁회사의 경영비밀을 몰래 빼내는 '도청', 이는 도둑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위협하고 사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파렴치한 도둑이다. 도청에 필요한 첨단장비가 범람하고 개인의 신상정보관리가 허술한 줄 알았다면 그에 대한 단속과 법적장치를 서둘러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다. 말을 조심해야한다는 뜻이 담겨 있지만, 요즘은 또다른 해석도 해봄직 하다. 남의 말을 훔쳐다 파는 낮새와 밤쥐를 조심해야 한다고. 이러한 현대판 낮새와 밤쥐들에게 법구경의 한귀절을 들려주고 싶다.

"못된 짓을 한 사람은 이세상과 저승에서 괴로워 한다. 지옥에 떨어져 거듭 괴로워 한다."

낮새와 밤쥐들



SUPEX
SUPER EXCELLENT

선경의
세계화전략은
SUPEX추구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 시대는 이제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세계가 보호막 없는 단일 시장으로 바뀌고
세계 각 기업들이 무한경쟁에 돌입합니다.
선경은 이러한 시대를 앞서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계화 전략으로 수펙스를 추구해왔습니다.

수펙스(SUPER EXCELLENT 수준)추구 —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수준에 도전하는
선경의 경쟁우위 전략입니다.

SUNKYONG
鮮京그룹

사 설

'생활속 수행' 자리매김 기대

— 재가회의의 보시·지계운동

한국불교재가회의(이하 재가회의)가 그동안의 준비기간을 통하여 축적된 내부 역량을 대사회 실천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지난 16~17 양일간에 걸쳐 '재가회의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하에 열린 대토론회의 결과 우선 매월 1일을 지계와 보시의 날로 정하고 전 불자가 동참하자고 밝혔다.

현대산업사회에 팽배된 도덕적 위기의식과 인간소외 내지 자기상실은 주체적 자아의 망각과 가치관의 상실이라는 사회모순을 야기하고 있다. 후기 산업사회로 치닫고 있는 현대의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로서 그 존엄성을 유지하며 공존해야 한다'는 가치관의 정립이 절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재가회의가 매월 1일을 보시와 지계의 날로 정하고 기본 5계는 물론 대중교통의 이용, 산업쓰레기 내지 생활 쓰레기 절감, 국내외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 선도, 술 안먹기 등을 행동으로 옮기자고 선언한 것이다. 정녕 바람직한 재가불교 운동의 한 단면이라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원래 보시와 지계는 대승불교의 사회적 실천 덕목인 6바라밀의 일부다. 보시는 나눔의 덕목으로서 재화, 교육, 평화를 공유하자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 지계는 재가의 5계를 수지하므로써 맑고 향기로운 삶을 가꾸자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매월 6일간은 출가수행자와 똑같이 수행하며 '더불어 삶의 의미'를 되새김질했던 전통이 있는 바, 이것을 우리는 6재일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전래된 이래 고대부터 행해오던 10월의 제천(祭天)행사가 불교와 융합되어 팔관회로 발전하였는데 팔관회란 축제기간 중에 6재일에 지키는 8재계를 지키는 것이었다. 축제와 청정한 생활이란 언뜻 모순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로 융합했던 것이다. 적어도 축제가 방종이나 무질서로 흐른다면 참다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가불교회의가 매월 1일을 보시와 지계의 날로 선언한 것은 대승정신과 팔관회의 전통을 계승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전불자가 동참하는 국민적 시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한국불교재가회의는 불교단체 중에서 210여명에 이르는 각계 각층의 지도적 인사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발족후 6개월간 긴 침묵의 시간을 통해 지나친 신중함을 보여 주었다. 이제 첫 작품이 탐스럽게 열매 맺길 바라면서 몇가지 고언을 더하고자 한다.

우선 재가회의의 구성원이 전국적이고 전문적인 사계의 지도적 인물들임에도 몸통과 다리가 없는 조직이란 비판이 있어 왔다. 조속히 체제가 정비되길 바랄 뿐이다. 또한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지도적 인사들의 모임이라 가졌던 기대에 비해 그림자는 있었으되 구체적인 실천이 부족했다는 비판이다. 차제에 이런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추진력을 기대한다.

불교계는 그동안 수 많은 단체들이 각종의 행사를 벌여왔다. 이런 단체들과 달리 재가회의가 전개하는 보시·지계의 날 제정은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유명무실한 일과성 운동이 아니길 바란다.

'우리는 본래 부처임을 깨달아 생활자체가 수행이라는 의식혁신을 통해 새로운 신행의 덕목과 방편을 개발·실천한다'는 행동강령처럼 새바람을 일으키는 실천운동의 계기가 되길 당부한다.

현대만평

박구원



한줌의 쌀이 모여…

열린마당

북한 수재민 돕기

한반도가 엄청난 수재로 피해복구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북한지역은 전 국토의 75%가 수해를 입는 등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시민단체들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수재민돕기운동 전개를 발표했고 정부도 지난 18일 북의 공식요청이 없어도 동포애로써 2백만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태도를 지적하며 신중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 수해지원과 관련 종단의 지원 계획과 더불어 이에 대한 여러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자비행·정치타산 대비는 '금물'

— 동 진 (대구불교교육원장) —

조계종 총무원과 종단협이 남북수재민 돕기 성금모금 창구를 개설한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

대북쌀지원 문제라든가 수해지원문제를 놓고 반대와 찬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그것은 남북관계를 둘러싼 정치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국민정서의 문제에서 기인되고 있다. 승려로서 그러한 문제를 두고 의견을 보태고 싶지는 않다.

다만 종단과 불교계가 늦게나마 창구를 개설한 것은 종교인의 인도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자비를 중요시 하는 불자들이 대북 수해지원금을 내놓는 것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일이다. 신앙심의 발로에서 행해지는 자비운동과 정치적인 타산의 문제를 대비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인간의 도리고 불자의 사명이라면 이번 창구개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많은 불자들의 동참으로 자비실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풍년 잃은 중부권 피해복구 우선

— 김 종 록 (소설가) —

불교계의 대북수해지원 움직임이 가시화 된 것은 정부의 수해지원과 맞물려 놓고 생각할 때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쪽이 정치적이라면 불교쪽은 순수한 자비심의 발로란 차이가 그것이다.

그러나 어느쪽이든 대북 수해지원은 반대하고 싶다. 그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수해지원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논리가 갖는 공허성이다. 이 부분은 쌀지원에서 이미 많이 거론된 것이기도 하므로 더이상의 언급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

또하나는 우리 내부의 문제이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나 불교계에서도 충청도 등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막상 농토를 잃은 우리 농민들의 시름에는 배상과는 별도로 대북지원이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전북의 일부도 풍년을 잃고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북문제를 '모양 갖추기'의 정치적 문제로 돌려서는 안되고 거기에서 종교적 '자비심'이 희석되는 것도 염려스러운 일임을 지적하고 싶다.

동족애 확인 시킬 순수행동 필요

— 정 의 홍 (대전대 교수) —

한 일간지가 여론조사결과 대북수해지원을 보는 국민의 눈은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다.

60%가 넘는 사람이 반대 의사를 갖고 있으며 그 이유의 가장 큰 요인이 충청지역 수해복구란 것이었다. 이는 남쪽의 논밭을 복구하는데 더 적극성을 보여야지 대북수재에 대한 바람몰이는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사실 이 조사에서도 돕는다면 같은 동포란 점 때문에 가능한 것(71.8%)이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란 판단은 극히 낮았던(10.2%) 것이다.

불교계의 대북수해지원 창구 개설도 이런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무조건 동포애에 호소하거나 자비행에 호소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종교는 종교인의 도리와 사명을 보여주는 순수행동이 필요하므로 불자들의 동참은 결과 보다는 과정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실천운동이 될 것이다.

교계 움직임

조계종 총무원 모금본부 개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16일 총무원 청사 1층 회관에서 '남북 수재민 돕기 모금본부 개소식'을 가졌다.

월주스님은 개소와 관련해 "북한 수재민돕기운동은 고통을 같이하는 동족애의 발현이자 동체대비정신 실천이며 생명존중의 불교사상을 이땅에 구현코자 하는 것"이라 말했다.

조계종은 또한 피해가 심한 충남북 지역의 수덕사·마곡사 말사 피해 상황을 파악, 정부에 수해 복구지원을 촉구하며 피해사찰의 4/4사분기 일반분담금을 면제해 줄 예정이다. 또한 본사와 수해입은 사찰을 자매결연시켜 복구비용을 지원토록 할 계획. 현재 수해사찰로 파악된 곳은 수덕사 마곡사 옥련암 정암사 용화암 백운사 도피안사 보살사 등.

또한 한국불교재가회의(상임의장 서돈각)도 지난 16~17일 양일간 대토론회를 갖고 남북 수재민돕기모금에 들어갔다. 불교계의 모금 목표액은 7천만원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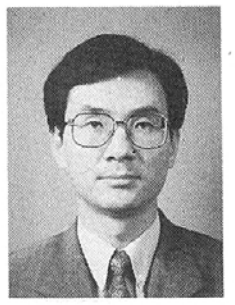
조계종 문화사회부
(02) 753-5863
불교종단협 사무국
(02) 732-4885
한국불교재가회의
은행지로 5070187

시 론

전륜성왕을 닮으세요

최근 불교계를 비롯한 각종 언론기관의 보도에 따르면,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종교계를 향한 정치권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먼저 지난 13일에는 민자당 김윤환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 민자당 대표가 직접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4일에는 민주당의 공동대표인 박일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총무원을 찾아 원장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또한 지난 15일 김포 금정사에서 거행된 중앙승가대학 신축캠퍼스 기공식에는 각당 국회의원과 문체부장관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고 주돈식 장관은 김영삼 대통령의 축사까지 대독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권의 행보는 비단 불교계를 향한 것만은 아니다. 천주교와의 관계개선은 물론이고 개신교와의 유대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생생한 TV화면을 통해 공개된 것처럼, 김 대통령은 영부인과 함께 직접 충현교회에서 예배를 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들이 뭐 그리 대수로운 것이냐는 물음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이어서 의례적인 일로만 보아 넘길 수는 없다고 본다.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승패를 가름한 한 요인이 종교계의 집단적 투표성향에 있었다고 하는 여·야 정치인들의 똑같은 분석이 있었음을 상기해 보면 작금의 상황은 결코 예사스럽지가 않은 것이다.



박 경 준
〈동국대 교수〉

정치협상무대 아닌 종교

더욱이 최근 정치권의 불교계 방문은 그 형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김윤환의원이 민자당 대표의 자격으로 방문했다는 점도 그렇고, 김대표가 지난번 한통사태로 인한 조계사내 공권력 투입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고 불교계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도 그렇다. 김대통령의 중앙승가대학 축사 내용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점들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정치권의 움직임이 순수한 동기와 의도에서가 아니라 선거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순수한 방문이라면 나쁠 게 없겠지만 숨겨진 의도와 목적이 있는 방문이라면 정치권이나 종교계 모두를 위해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못된다. 총선을 앞에 둔 지금은 예방을 위한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행여 국민들에게 '정치권과 종교계가 정치적 흥정이나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과 우려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 혼탁한 시대에 적어도 종교계만큼은 순수하고 청정한 성역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모든 권위가 사라져가는 아노미사회에서 그나마 종교적 권위라도 살아있어야 한다. 그 누구보다도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종교계가 그 소중한 권위를 잃지 않고 인류의 마지막 도덕과 양심과 영혼을 지켜줄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해 주어야 한다.

혼탁한 시대 청정한 성역

현 시점에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종교계가 그 특유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와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가 나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그가 만약 욕망의 격정을 품지 않고, 성내는 마음과 삿된 생각을 품지 않고, 방일하지 않아,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는 바로 내 곁에 있는 것이며, 나는 그 비구 곁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을 보는 자는 곧 나를 보는 자이기 때문이다"는 〈이티붓타카〉의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을 들려주고 싶다.

불교에서는 정법(正法)에 입각한 공평무사하고 자비로운 정치, 즉 법치(法治)를 행하는 전륜성왕을 최고의 정치인상으로 삼는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애타는 정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큰 사람은 법치의 이상을 품고 이럴 때 일수록 신중하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공고된 시험일을 부활절이라는 이유로 변경하고, 그러면서도 부처님 오신날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려도 없는 편파적인 정책, 문화유산의 가치를 아는 뜻있는 외국인들 조차도 반대하는 고속전철 경주도심통과계획을 강행하려는 고집,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과 성공한 쿠데타를 운위하며 5·18관련자를 불기소처분하는 억지. 이러한 어리석음과 비법(非法)을 반성·청산하고 나서도 부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얼마든지 있음을 정치권은 알아야 할 것이요, 그에 앞서 정법(正法)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중한 불교계에 대한 예우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깨침과 나눔을 함께 하는 열린 도량

황악산 직지사 30년 중창 불사 회향

■ 모시는 말씀

黃岳山 直指寺는 16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新羅佛敎初傳 가운데 대표적 伽藍으로 아도화상이 開山한이래 直指人心 見性成佛을 創寺理念으로 頓悟自證하여 禪風을 振作시키고 佛祖慧命을 傳承해 온 東國第一의 伽藍입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지켜온 직지사는 여러차례 전란 으로 소실되고 허물어져 빈터만 남은 곳이 많았습니다. 이에 小衲은 부처님 앞에 佛敎中興을 다짐하는 第二 創寺의 誓願을 세웠습니다.

이 發願에 感應은 사무치고 全國 佛子들의 원력이 하나들 모여 전각과 堂宇들이 옛 모습대로 신축, 개축되고 퇴락한 당우는 새로운 文化的자태를 갖고 태어나 이제 直指寺 사역 전체가 불교 理想을 표상하는 道場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을 비롯한 經律論 삼장을 硏磨하고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萬德殿까지 復元을 하였습니다. 觀應祖室스님을 모시고 重創佛事를 시작한지 올해로서 三十年이 되어 廻向 法會를 갖고져 하오니 빠짐없이 동참하여 한량없는 공덕을 거두어 가시기 바랍니다.

黃 岳 山 直 指 寺
住 持 綠 園 合 掌



중창불사 회향 법요식
2539년 10월 19일 오전 11시
만 덕 전

기념행사

- 중창불사 사진 전시회 9.25~10.19 만세루
- 산사의 환경 음악회 10.15. 오후 3시. 직지사 잔디마당
- 성보 박 물 관 개관 10.17. 오후 1시
- 세미나 10. 17 오후2시 천불암
  신라불교의 재조명
  제1주제-신라불교 초전의 제문제
  제2주제-신라 고승들의 사상과 그 시대적 역할
  제3주제-신라삼국통일및 오늘의 분단현실에 대한 불교의 역할과 사명

만등불사에 참여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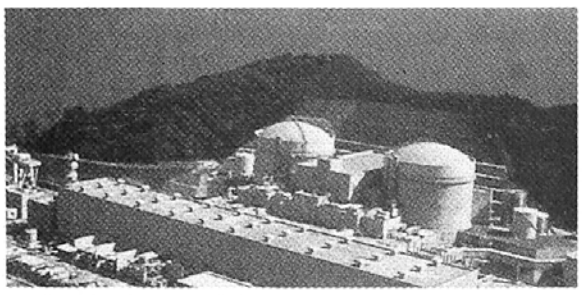
황룡사 9층탑을 모형으로 제작하여 만등을 밝힙니다.
1인 1등으로 가정의 평화와 이웃과 나라의 발전을 다함께 발원 합시다.
동참금 : 일만원

- 국민은행 605-01-0328-929 직지사

문 의 : 직지사 종무소 : 0547)436-6174,
재무실 : 0547)436-6013
주 소 : 741-810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협찬 : 삼성전자 쌍용 서광건설 우방 고려기와 제일목재 풍산동기와

방사선 유전병 유발 장애초래



◇원자력은 다량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나 방사성폐기물의 폐해가 심각하다.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㉖

핵 에너지

핵전마을 무뇌아 출산등 이상현상 속출
체르노빌 사고땐 기형아 1백만명 발생

증지아함경(增支阿含經)에 의하면 첫번째 태양의 열기가 증가되어 가뭄이 들고, 두번째 태양에 의해 하천물이 마르고, 세번째 태양에 의해 큰 강물이 마르고, 네번째 태양에 의해 호수의 물이 마르고, 다섯번째 태양에 의해 사대양의 물이 마르고, 여섯번째 태양에 의해 이 세상과 수메루가 연기를 내뿜고, 일곱번째 태양이 나타나면 지구는 폭발하여 사라진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구 멸망의 날에 태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불분명하지만 핵에너지가 갖는 위험한 에너지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 지구상에 현재 잘못 이용되었을 경우 가장 위험한 에너지라고 한다면 원자력에너지일 것이다.

핵발전소와 핵무기는 똑같은 핵분열반응에 기초하고 있다. 핵분열은 우라늄 1g 속에 들어있는 1조의 25억배나 되는 모든 원자가 순식간에 분열하는 것으로, 이때 소요시간은 100만분의 1초 정도이다. 핵무기는 이러한 핵분열의 연쇄반응을 순간적으로 진행시키는데 비해, 핵발전소는 핵분열의 연쇄반응을 제어하여 점진적으로 진행시켜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러한 핵분열과정에서 불안정해진 미립자에서 생명체를 위협하는 방사능이 생겨난다.

일반적으로 빛·열·전파 등도 방사능의 형태인데 자연의 방사선은 비이온화성으로 위험하지 않지만 생명체의 세포를 파괴하는 핵분열 과정에서의 방사선은 이온화성으로 되어있어, 매우 유독한 보이지 않는 불을 형성한다.

이러한 방사선에 노출되는 일은 매우 작은 총알에 세포중심의 유전자를 쏘이는 것과 같다. 그것은 체세포의 변화를 초래 전신장애, 소화기관 및 중추신경장애와 각종 악성종양과 수명단축을 초래하고, 생식세포에 영향을 끼쳐 유전병을 유발시킨다.

1945년 7월 미국이 뉴멕시코 엘러고도사막에서 핵실험을 한 이후 지금까지 약 1천5백회 정도의 핵실험이 대부분 아이러니칼하게도 평화목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반복되는 핵실험에 의해 성층권까지 올라간 방사능 물질이 전세계에 퍼져, 76년까지만해도 145Mt분의 유해 방사능물질이 지구 전체로 확산되었다.

비교적 안전한 핵발전소에서도 핵분열의 제어에 가끔 문제가 생기며,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수의 온배수(溫排水) 문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방사능으로 오염된 핵폐기물의 처리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핵에너지라는 가공할 불이 일으키는 재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1945년 히로시마의 원폭투하로 20만명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아직도 14만여명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또 1979년 미국 드리마일섬의 핵발전소 폭발로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 인근 주민들이 암, 백혈병, 유산, 기형아 등의 고초를 겪어왔다.

특히 1986년 체르노빌의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2차대전 이후 인류가 당면한 최악의 사고였다. 이때에 방사능 피해를 입어 오늘날까지 서서히 죽어가고 기형화되고 있는 사람이 1백만명이 넘고, 피해지역은 남한땅보다 훨씬 넓은 면적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1993년말 현재 상업운전중인 9기의 핵발전소가 있고, 전체 발전량의 47.5%를 충당한다. 핵발전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5천여명에 이르지만, 공식통계에 의하면 단 한명의 방사능 피해자도 없다고 하지만, 정부는 핵전 부근마을에서 생기는 각종 기현상을 외면하고 있다. 핵발전소 부근에서 무뇌아가 탄생하고, 항문없는 송아지가 태어나고, 세 발 달린 강아지가 생겨나고, 물고기의 등이 휘고, 색깔이 변하고, 어류가 반이상 멸종되는 등의 사건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한국불교대 교수〉

재가회의 대토론회 주제발표 요지



◇한국불교 재가회의가 창립 6개월만에 지난 16~17일 '재가회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살의 수행덕목과 재가불자의 현대적 승가로서의 요건이 제시됐다.

"현대적 승가로 새출발하자"

오늘의 재가불자, 불교를 좋아하는 동호인인가 불자인가. 이에 대한 반성과 재가불자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있었다.

지난 16~17일 양일간 펼쳐진 한국불교재가회의(상임의장 서돈각) 대토론회에서 이기영 공동대표는 '귀명삼보(歸命三寶)의 참된 의미와 실천'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불 법 승 삼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귀의하는가에 따라 불자의 모습과 역할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원효스님이나 예불문, 대승경전에 나타난 삼보관(三寶觀)은 본질적으로 일심(一心)이며 삼보일체(三寶一體)이다"고 전제하고 "모든 중생이 예외없이 불성을 가지고 있어 생명있는자,마음있는자 그누구도 정각을 이루고 보살행을 실천해 가는데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을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대표는 "기존의 율장만이 현대승가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본이 될 수 없으며 율장의 전통을 따르려면 율장의 조목을 지켜야 할 것이고 적당히 고쳐가면서 지키려면 율장의 개정작업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표는 "불자는 예불문에 나타난것처럼 중중무진하게 펼쳐져 있는 세계에 항상하고 있는 삼보에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바쳐 귀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가회의가 현대적 상가로 출발하기위해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본각(本覺)이며, 여래장(如來藏)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부처님의 광명을 불보(佛寶)의 체(體)로 받들고 그상(相)과 용(用)의 거룩함에 귀명한다 △삼보의 동체대비속에 우리는 그 분신으로 신(信)명(命)재(財)를 바쳐 불국토를 장엄하는 대역사를 시작한다 △21세기 새 문명창조위해 낡은 가치관을 버릴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영 목숨 바쳐 삼보에 귀의해야
권기종 서원·회향 보살의 수행방편

두번째 기조발표에 나선 권기종교수(동국대)는 '보살의 지혜와 실천방향'이란 주제에서 "보살이란 인격이 특별히 부각되는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이다"고 전제하고 "대승불교의 보살이나 불자는 피지도적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체가 되며 능동적으로 대중을 이끌고 지도하는 자리에 서있으므로 보살은 재가신도의 개념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권교수는 보살의 수행덕목으로 '육바라밀다'를 제시하고 "보시에서 지혜에 이르는 여섯가지 덕목자체를 완성해야만 진정한 수행이 된다"고 강조했다. 권교수는 또한 "보살마하살의 수행에는 서원과 회향이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각자가 쌓고 있는 모든 선행과 복업(福業)을 일체중생을 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제2의 회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교수는 "이같은 보살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직시하여 오늘의 불자들은 지혜의 완성과 수희, 서원과 회향, 선교방편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엽 기자

신행수첩

청소년 있는곳 청정하게
청교련 유해환경 감시교육

산업사회의 발달로 우리 생활은 그 어느때보다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런 물질문명의 여유로움 속에서 필요악인냥 기생하는 것이 유해환경이다.

주위 곳곳에 산재해 있는 유해환경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지 않을까?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에서는 위험수위에 다다른 청소년 유해환경의 심각성을 함께 공감하고, 청소년기의 호기심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한마당 장을 마련했다.

오늘 29일 여화여상에서의 '인천광역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시민교육'이 바로 그것.

이번 시민교육은 여화여상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인천지역 각 학교와 사찰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이 실시된다. (032)888-3228

참배객 줄잇는 성모암
금강경독송회 사찰순례

농부는 한 해의 곡식을 거두고 수행자는 한 철 공부의 무게를 달아보는 계절이다.

금강경독송회에서는 깊어가는 가을에 진묵대사의 향운을 느끼고자 내달 8일 전북 완산 원등사와 부안 성모암으로 사찰순례를 떠난다.

원등사는 전북 완산 소양면에 위치한 해발 770m 고지의 석굴 나한기도도량으로 진묵대사가 변산 월명암에서 나무오리를 깎아 날려보내 터를 잡았다는 사찰로 지금도 진묵대사가 정진하던 토굴이 잘 보존돼 있다. 또 부안 성모암은 진묵대사가 어머니를 위해 묘를 쓰고 절을 지었는데 소원성취의 영험이 널리 알려져 참배객이 줄을 잇고 있다. (02)931-9900

203계단 오르며 통일서원
진여회 각원사 찾아

천안에서 북쪽 5.6㎞지점 태조산 언덕을 오르면 세계 최대라는 아미타청동불이 나타난다.

이 좌불은 높이 12m, 둘레 30m에 귀의 크기만도 1.75m로 청동 60톤이 주입된 것이어서 전국 각지의 관광객이 끊이질 않는다.

언덕아래 골짜기에 이 대불을 받들고 있는 각원사가 있다. 각원사는 남북통일을 발원하며 법인스님이 세운 절로 큰 규모의 산신각과 칠성각, 요사채 등이 마련돼 있다.

진여회가 오는 10월 3일 천안 각원사 등을 둘러보는 성지순례를 떠난다.

특히 이 대불까지 올라가는데는 203개의 계단이 있는데 이것은 108번뇌와 관세음보살의 32화신, 그리고 아미타불의 48소원(所願) 및 12인연(人緣)과 3寶등 불법에 연관하여 설정한 유래를 알 수 있다.



◇남북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세워진 천안 각원사의 아미타불좌상. 불상의 복장속에는 부처님 진신사리와 팔만대장경 탁본이 봉안돼 있다.

천안역에서 46번 좌불상행 시내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있어 찾아가기에 편리하다. 또 이곳에서 2㎞쯤 태조산을 에두르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성불사와 은석사도 볼 수 있다. (02)720-3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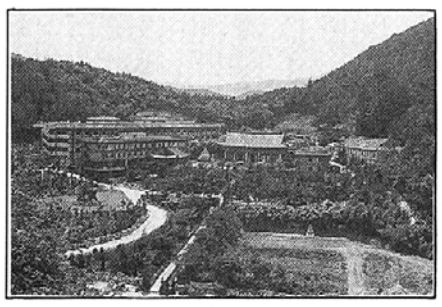
불심 펼치는 교사학교
중앙교육원 정토법당

늘 열려있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며 흔들림없는 자세로 참교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교사들을 위한 제 9기 교사불교학교가 열린다. 다시 배운다는 겸허한 마음자세로 연기,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등 불교의 교리와 불교의 가정교육, 자녀지도등 실생활 프로그램을 공부하게될 이번 교사불교학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속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는 10월4일부터 11월2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중앙불교교육원 정토법당에서 열리는 이번교사불교학교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522-2841

성지순례 양산 천불사가 좋습니다

(범어사에서 20분 통도사에서 30분 거리)



천불사는 2만여 평의 광활한 도량에 80평 규모의 목조 대웅전과 1500여 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약사전, 종각 등 15동의 건물이 짜임새있게 배치되어 있는 대가람입니다.

특히 토함산 석굴암이 신라시대의 문화유산이라면 우리 시대의 문화유산으로 후세에 깊이 남을 관음굴 석굴은 천불사를 찾는 참배객들을 경탄케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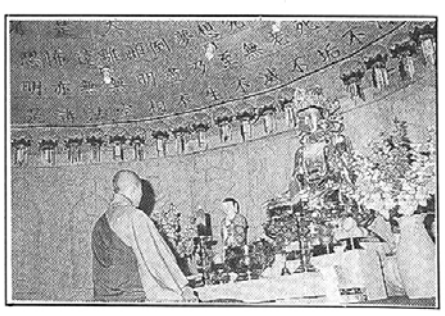
관음굴은 60여 평 규모의 자연동굴 내부에 대리석으로 된 조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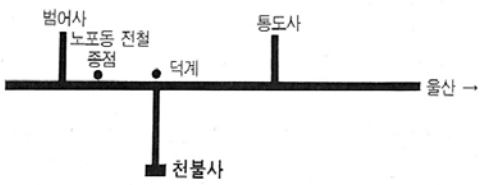
관음굴 정면 벽면에는 관음보살과 18나한, 사천왕 등을 부조해 모셔놓았으며 돔형 천장에는 중앙에 비천상 주위로 반야심경을 각인해놓아 관음굴의 기도영험은 차치하고라도 그 예술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불사를 찾는 참배객들은 전통사찰이 아닌 사찰이면서도 정말 볼거리가 많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한번 다녀가십시오.

범어사에서 20분, 통도사까지는 30분 거리에 있어서 삼사순례 코스로 정말 좋습니다.



천불사 가는 길



대한불교 조계종 **천 불 사**

신 도 회 장 **허 보 은**

신도회총무 **변 정 석** 합장

교 차 로

중앙승가대서 특강



진제스님(해운정사 조실)은 지난 20일 중앙승가대학 학생회 특강시간에 참석, '불교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강연했다.

8일 부산 KBS홀서 설법



대행스님(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장)은 10월8일 오후2시 KBS 부산홀에서 '苦에서 벗어나는 길'을 주제로 설법한다. (051)403-7077

9월 다보법회서 법문



혜거스님(금강선원 원장)은 오는 27일(수)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다법당에서 봉행되는 9월 다보법회에 초청돼 법문한다.

통일기원 수륙영산대법회



홍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은 오는 29일 경북 안동 임하댐에서 광주50주년 남북 통일기원 생전예수재 및 수륙영산법회를 봉행한다.

제주거사림회서 법문



법정스님(맑고 향기롭게 운동본부 회주)은 10월7일 오후3시 제주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제주불교거사림 창립 10주년 기념 초청 강연회에 참석, 법문을 펼친다.

일본여성 초청 위문잔치



삼중스님(자비사 주지)은 지난 16일 서울에 사는 일본여인(부용회) 1백여명을 타워호텔로 초청, 오찬과 함께 위문잔치를 베풀었다. 이날 가수 이영화씨등 한국가수와 일본가수 2명은 노래로 부용회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삼중스님은 이에 앞서 삼성야구단 2군 선수들을 대상으로 '정신전력 강화'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안국사 복원불사 회향



원행스님(안국사 주지)은 10월6일 복원불사 낙성식및 만등불사를 봉행한다. 이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대흥사 주지 천운스님이 참석한다.

'학촌불교회관' 낙성식 참석

사상호씨(부산불교신용협동조합 이사장)는 지난 23일 경남 학촌불교회관 낙성봉불식에 참석했다.

'반야심경 강술' 출판 기념회



성진스님(일광 약수정사 주지)은 지난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대한불교신문에 20여회에 걸쳐 연재해 온 '반야심경 강술' 출판기념 법회를 개최했다.

사할린동포 초청 위문공연



운월스님(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회 회장)은 10월2일 오후2시 경북 고령 소재 대창양로원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51명을 초청, 위문공연(KBS 가요무대)을 갖는다.

소년 가장돕기 서화 초대전



성각스님(남해 망운사 주지)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부산 국제문화센터에서 '소년소녀 가장돕기 특별서화 초대전'을 개최했다.

구화산 성지순례후 귀국





강학일회장(반야라이온스·사진위)은 회원 20여명과 함께 지난 21일~26일 중국 구화산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리선행법사의 인솔아래 신라 지장법사의 가르침과 교화의 자취를 살펴보고, 한산과 항주의 불교유적을 돌아보았다.

'유통관계법…' 학술 발표



연기영교수(동국대·본지 논설위원)는 2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한국유통산업관계법의 개선방향과 WTO체제'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 '유통관계법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의 과제와 전망'을 발표한다.

'추전 서화집' 펴내



김화수씨(서화가, 추전서당 훈장)는 그동안 각지면에 발표했던 글과 서예 왕죽 목단 연 등 서화를 모아 '추전서화집(秋田書畵集)'을 펴냈다.

동호갤러리서 작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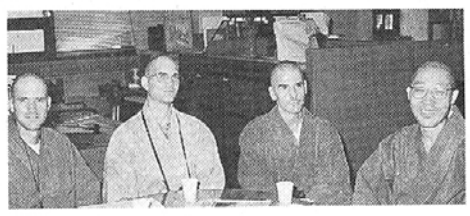


손욱씨(미술가)는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동호갤러리에서 야채라는 상징적 모양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적 의미를 다룬 작품을 20여점 선보였다. 손씨는 진각종 회당대종사의 손녀.

와우정사에 태국 불상 기증



타왓차이타 위시씨(태국대사)는 지난21일 세계1만불 조성불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와우정사에 태국국왕의 문장이 새겨진 불상 2구를 비롯 태국불상 77구를 전달했다.



"한국불교 피부로 느끼게 할 터"

제자들과 서울에 온 加선련사 삼우스님

미주 한국불교의 개척자며 현재 북미주에 한국불교를 알리는데 여념이 없는 삼우스님(캐나다 토론토 선련사 북미국제불교운동 회주)이 지난 18일 파란 눈의 제자 3명과 함께 서울에 왔다.

이번 한국방문은 제자들에게 한국불교의 이모저모를 보고 피부로 느껴 보라는 배려겸 모국의 불교를 돌아보기 위해서다

두달 열흘간 3보사찰뿐 아니라 도심포교당까지 제자들과 함께 한국 구석구석의 불교자취를 더듬어 볼 계획인 삼우스님과 눈푸른 제자들은 '벌써 설레임으로 가득하다.

서양에서 불교가 서서히 자리잡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스님은 불교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승려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게시판

▲남산 순례법회=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이하우)은 오는 10월1일 개교 13주년 기념 경주 남산순례법회를 실시한다. (051)818-8659

▲우리는 선우 회원 재등록=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박광서)는 조직강화를 위해 회원가입서를 다시 받고 있다. (02)278-8672~3

▲금강사 해외3사 방생법회=다음달 13~17일까지 실시되는 이 방생법회는 대만의 일월담 호수와 용호담 홍콩등지에서 성지순례와 함께 실시된다. (02)993-3744

▲지도자연수=대불청 중앙(회장 이상번)은 오는 28, 29일 전국지도자연수교육을 광주 향림사에서 실시한다. (02)738-3386

▲대승불교정론 창간법회=대승불교정론(발행인 지선스님) 창간기념법회가 오는 29일 오후5시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 1층에서 봉행된다. (02)747-1901~2

▲성훈따주기 강습=서대문 수효사(주지 무구스님)의 제17기 성훈따주기 강좌가 2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수효사문화원에서 열린다. (02)313-3037

▲양재교실=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은 주부및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양재교실을 연다. (02)935-0161~4

▲카운슬러대학=자비의 전화(회장 정덕)는 오는 10월2일~10월30일까지 제10기 카운슬러대학을 개최한다. (02)737-7378

화촉 전 동족나라기자 허성희씨가 10월3일 오후2시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문병렬씨와 화촉을 밝힌다. (0363)441-6843



중앙승가대 김포 제2캠퍼스 기공식

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스님) 제2캠퍼스 (경기도 김포군 금정사 경내) 기공식이 지난 15일 거행됐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사장 월주스님을 비롯 월탄 설정 원산 원혜 무상 동명 여연 동광스님 등 교계 중진스님과 문체부 주돈식장관(김영삼 대통령 치사대독) 이종찬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곽정출 신두식 박종웅 국회의원등 각계각층의 인사와 신도등 4백여명이 참석했다.



공주 성곡사 대불·천불 점안식

공주 고불산 성곡사(주지 관묵스님)는 지난 17일 대불 및 천불 점안식과 회향식을 성황리에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칠보사조실 석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성곡사 회주 혜정스님, 국회정각회 권익현회장, 민자당 이상재·강선영의원, 자민련 정석모의원등 사부대중 2만여명이 참석했다.

석주스님은 법어를 통해 "참회를 통해 모든 미망을 끊고 본성을 되찾자"고 말했다.



대원 장경호거사 20주기 추모법회

故 대원 장경호 거사 20주기 추모법회가 지난 17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모법회에는 법수선원 조실 성수스님, 태고종 부원장 혜초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원융종 총무원장 일공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도원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스님, 강한필 불교방송 사장, 손병철 육해공군 법사단 대표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했다.



불교문인협 10돌기념 '문학심포지엄'

한국불교문인협회(회장 립영창) 창립 10주년 기념 '불교문학 심포지엄'이 지난 16일 개최됐다.

〈불교문학의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 아래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평론가 원형갑씨, 장백일씨가 〈불교와 문학〉 〈깨달음의 문학이 부처님을 본다〉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불타의 발자욱'의 김대현씨(시인)가 한국불교문학대상 범종상을 수상했다.



아반코리아 한국대표 김영민씨

내일을 여는 불자

아시아 젊은이와 함께 봉사활동

백제문화 복구·농어촌 돕기등 관심 다양

"자원봉사는 바로 자기 공부지요. 외향적으로는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 행하는 일인것 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자신을 사회속에서 변화 발전시키는 학습의 장입니다"

아시아 지역 순수민간자원활동 단체인 AVAN KOREA(Asia Voluntary Action Network)의 한국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민(33세)씨의 말이다.

그는 잠실 불광사학생법회 지도법사로 활동중이던 지난 89년 일본서 열린 아시아 청년 자원봉사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함께 참여했던 이들과 함께 아반코리아를 결성했다.

국제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아반 코리아활동을 시작했다는 그는 지난 93년부터 아시아의 젊은 이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통해 내일을 열어가고 있다.

워크 캠프를 통해 소외된 계층을 돕고 농어촌 개발, 전통문화학습, 사회복지제도, 국제이해 및 협력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회원들과 함께 하며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의 개념을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바꾸는 일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다.

그는 특히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청소년포교에 남달리 관심이 많기도 하다.

이런 그의 관심은 지난 8월 불교자원봉사연합회에서 실시된 청소년 여름자원봉사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강의로 표출되기도 했다.

"불교는 자원봉사활동을 뒷받침해 줄 훌륭한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가 가져야 할 사회성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데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현장경험을 통해 느낀 그의 생각이다.

김영민씨는 "종교적인 체험과 함께 청소년들의 자발적 의지를 키우며 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속에서 불교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자원봉사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동료회원들과 함께 아직 우리에겐 낯설게만 느껴지는 백제문화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결정했다. 지역군청의 도움을 받아 광주일대를 돌며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무너진 축도 쌓고 그자리서 공부도 하면서 봉사의 현장에서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얻었다.

김영민씨는 "우리주변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하는 것, 자원봉사는 중요한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은자 기자

이미 수많은 불자가 지장보살님을 모셔놓고 정진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가정 한분모시기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요

1. 무불시대의 부처님. 이시대의 부처님이신 대원본존지장보살마하살님을 가정에모셔놓으시고 조석으로 예경하고 마음을 닦지않으시렵니까. 사바세계의"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성불시키는 그날까지 성불하지 않겠노라"는 본원을 세운 대성지장보살을 이미 전국삼만불자가 모셔놓고 정진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혼신의 힘과 심혈을 다하여 제작된 백자(도자기)지장보살존상은 금전적인 가치로는 따질수 없는 소중한 보배이오며 이시대 최고의 예술품이오니 한분씩 모셔놓고 기도하시면 삼세업장이 소멸되고 무량공덕을 필히 얻으실 것이오니 불자님께서도 동참하여 주십시요.
2. 사찰에서도 원불로 모실수 있습니다. (많은 사찰에서 원불로 모셨습니다.)
3.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을 백자에 순금으로 대전신흥사의 묘허큰스님(혜원)께서 친히쓰신 도자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입상 • 25cm×30cm×33cm


지장보살좌상 • 25cm×30cm×33cm


• 45cm×14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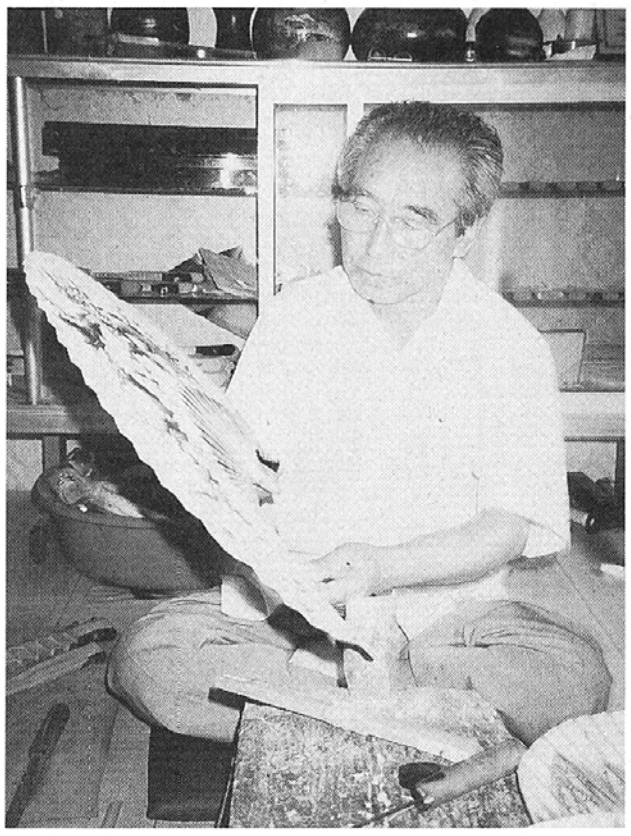
1. 장식장 포함됩니다.
2. 구입방법 본사 :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1038-13 佛音般若
   TEL 0345-413-4647~8
   경남지점 : 경남불교용품판매전시장
   TEL 0551-95-8911~2
3. 가 격 : 지장보살입상……200,000원
   지장보살좌상……180,000원
   혜연선사발원문……500,000원
   반 야 심 경……300,000원

京畿道 安山市 仙浮洞 1038-13
(佛音般若)
TEL : 0345-413-4647~8
全 斗 漢 合掌

마음의 불 끄는 부채 만들기 '숙제'

산문밖의 禪

합죽선 무형문화재 이기동 翁



"부채 보낸 뜻을
나도 잠간 생각하니
가슴에 붙은 불을
끄라고 보냈도다.
눈물도 못끄는 불을
부채라서 어이 끄리."

옛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우리들은 흔히 부채를 여름에 사용하는 도구로 땀이나 식히는 정도로 알고 있지만 시인은 마음의 붙은 불을 끄는 도구로 심화시켰다.

"땀만 식히는 물건 아니야"

합죽선(合竹扇)을 오래 만들어온 이 부문 무형문화재 죽우(竹雨) 이기동 옹(66, 전주시 대성동)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부채란 그리 간단한 물건이 아니다.

"합죽선이란게 단순히 땀을 식히는 물건이 아니야. 이 우주의 이치인 음양의 오묘한 조화가 들어 있어."

긴 대살(장시)과 짧은 대살(내시)을 붙여 골격을 만든다 해서 이름 붙여진 숙한 전통여인의 모습이다. 부채의 고리는 비녀이며 물소뿔로 된 손잡이부분은 머리카락을 상징하고 여인의 눈썹을 의미하는 선이 두가닥 들어가 있다. 그리고 도톰한 가슴과 가늘고 긴 다리를 감추고 있는 치마부분에 이르기까지….

부채의 양 테두리인 변죽의 마디마디에는 여인의 절개를 상징하는 국화문양이 들어간다. 부채 속살 하나하나에는 박쥐문양이 새겨지는데 이는 박쥐가 음을 상징하는 밤에만 활동하기 때문이다.

"더위가 양을 의미하므로 이를 다스리기 위한 부채를 음을 상징하는 여인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하등 이상할 게 없어. 천지자연, 음양의 조화를 생활 구석구석까지 실현시킨 선조들의 슬기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게지."

숯으로 연료를 쓰던 시절, 이옹은 엄한 스승 밑에서 말로 다하기 어려운 전수과정을 겪었다. 19세에 입문하여 반백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만두기를 다섯차례, 결국은 천직으로 되돌아 오

'스승 십훈' 되새기며 1백여 공정 모두 손으로
"공력 들이지 않고 좋은 작품 바라면 도둑심보"

합죽선은 태극선, 어두선, 죽절선 등 여러 종류의 부채 중에서도 그 정교함이나 풍류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깊은 이치에 있어 으뜸으로 꼽힌다.

합죽선은 대나무를 4일내지 5일간 푹 삶아 부드럽게 만든 뒤 깎고 구부리고 붙여서 만들기 때문에 합죽선 안에는 직선과 곡선, 강함과 부드러움이 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이러한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합죽선은 그 탄력성과 유려한 자태가 생명이다. 합죽선을 볼 때마다 이옹은 인간도 같다고 생각한다.

"의유내강의 멋이 있어야 돼. 사람이란게 무조건 뻣뻣해서도 안되고 귭실귭실 살랑거리기만 해서도 안되지. 강직하면서도 부드러운 인간미가 있어야 되거든. 합죽선 같은 멋과 운치가 있는 인간이면 최고지."

합죽선은 12세기에 고려시대 한 고승이 기녀의 모습을 상징화해 만들었다고 전한다. 오므린 합죽선은 영락없이 성고 말았다.

그는 스승이 적어준 십훈을 꼬깃꼬깃 접어서 지금까지도 지갑에 넣고 다닌다. 색바랜 종이위에 적혀있는 '정직무사(正直無邪)' '일심무이(一心無二)'를 읽고 또 읽고 한 것이 그 몇번이던가.

"지극정성 공력들인 것 없이 작품 좋기만을 바라면 그게 바로 도둑놈 심보야. 나는 이 일을 하나의 놀이처럼 즐겁게 해. 그러니 한달이 걸리든 두달이 걸리든 내 마음이 흡족할 때까지 하는거지."

1백여가지가 넘는 공정을 일일이 수공으로만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 얼굴을 한 부채는 하나도 없다. 가장 힘든 공정은 대를 하나하나 깎는 작업이다. 보통의 인내와 숙련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 1~2년 배우면 겨우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수십년 만든 사람도 감히 '만든다'는 말은 못하고 '배운다'는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 부채 만드는 공정이다.

이기동옹이 만든 합죽선은 일반인들이 봐서는 긴 살과 짧은 살이 붙은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하나의 살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정교하기 그지없다. 오랜 수련의 결과이다.

조급증이 세상을 더 덥게

일심무이의 정성으로 혼을 다해 만든 그의 부채를 펴노라면 인적이 끊어진 오지의 강물이 흐르고 나룻배가 떠 다닌다. 그리고 그 강에선 문명의 이기가 뿜어내는 오염되고 습한 바람이 아니라 폐부를 씻어주는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나온다. 요사이 어디에 가도 선풍기 또는 에어콘이 설치돼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보다 더위를 더욱 탄다. 이상기온으로 온도가 올라간 탓일까. 이기동옹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진 것을 첫째 이유로 든다.

"요새 사람들의 조급하고 각박해진 마음 탓이야.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콘 바람이 그게 어디 자연바람만 같은가."

한지와 대나무로 만든 부채는 살짝만 흔들어도 청풍이 넘실댄다. 대나무숲을 흔들고 온 시원한 바람에 절로 눈이 감긴다. 인간의 가슴에 활활 타오르는 탐진치마저 스르르 잠재워질 것 같다.

그동안 만들었던 뛰어난 부채 작품들은 거의 다 선물해 버렸다.

"원하는 사람들마다 나누어 주다보니 남은게 별로 없어. 그렇다고 돈을 번 것은 아니고…. 돈 벌려고 작정했다면 이 일을 못했을 거야."

그러나 주위의 권유로 이옹은 앞으로 작품을 보관하여 전시관을 건립하고 나아가 전국순회전시회도 가질 계획을 살짝 비춘다.

"늘그막에 무슨 소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야. 예인이라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그 순간부터 이런 마음을 먹게되지. 다음번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소망 말이야."

전주=이윤호 기자



삽화 · 이기선

업을 지으면 과보는 필연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㊹

업(業)

선을 행하면 선의 갚음을 받고
악을 지으면 악의 갚음을 받는다.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그 사름의 익힘을 따르나니
마치 오곡의 종자를 심어
제각기 그 열매를 거두는 것 같네

법구경의 업에 대한 말씀이다.

업에는 선업(善業), 악업(惡業), 무기업(無記業) 등 세 종류가 있다. 선업은 좋은 과보를 초래하고, 악업은 나쁜 과보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무기업은 과보를 맺지 못하는, 윤리적으로도 중도적인 것이다.

"곧 업이 검으면 검은 갚음이 있고, 업이 희면 흰 갚음이 있으며…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업이 있으면 갚음이 없어 업과 업이 다한다."

생사윤회 반복하며 받게돼

결과적으로 이 무기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업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업에는 실질적으로 두 종류의 업, 즉 선업과 악업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종자 심어서 열매 거두듯

업이 과보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행위 그 자체로써만은 안된다. 고의적이 아니고 계획되지 않은 행위, 또는 무의식적인 행위 역시 행위이긴 하지만 진정한 업을 이루지 않는다. 진정한 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업이란 무엇인가? 단적으로 업이란 의도이다. 왜냐 하면, 사람들이 원해서 몸으로나 언어로나 마음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업이 되기 위해서는 업이 윤리적으로 선하거나 악해야 하고, 또한 의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지작용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업보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이고 타인에게 이전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중부경전(中部經典)」에서는

"이 악업은 너의 것이다. 이것을 지은 것은 너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제도 너의 친구들도 선생들과 친척들도 일가들도 고행자들도 바라문들도 신들도 아니다. 이 악업들은 너 혼자서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과보도 너 혼자서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업을 짓는 이상 그에 대한 과보는 필연적인 것이다. 일단 이루어지면 그 업의 성질에 따른 과보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앞에서 본 그 열매에 그 씨앗과 같은 것이다.

붓다의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제일 뛰어났던 마우드갈랴야나는 마을에 탁발하러 갔다가 다른 종파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 그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인 샤리푸투라가 죽어가는 그에게 "당신은 세존의 제자 중에서 신통력이 제일이요 큰 위력이 있는데, 왜 그 신통력으로 그것을 피하지 않았소"라고 답한다. 이와 같이 업을 짓게 되면 틀림없이 그 과보(果報)를 받게 되지만 결과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남에게 이전시킬 수 없어

어떤 업을 지으면 어떤 과보를 받는다고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대체로 선업을 지은 자는 천상이나 인간계, 즉 선도에 태어난다. 그리고 악업을 지은 자는 주로 지옥 아귀 축생의 세계 즉 악도에 태어난다. 업은 몸과 언어 마음 등 그것을 짓는 수단에 따라 3종으로 나뉜다. 이는 다시 세분되어 10종으로 나뉜다. 이것을 10업이라고 한다.

업이 성숙되는 기간은 다양하다. 장아함에서 붓다는 업이 그 결과는 나타내는 시기를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즉 "업의 과보에는 3종이 있다. 업은 이 생에서 익고(順現業), 다음 생에서도 익으며(順生業), 여러 생에 걸쳐서 익는다(順後業)"는 것이다.

업의 과보에는 이상에서와 같이 여러 생에 걸쳐 받게 된다. 윤회이론에서 과보는 필수적으로 다른 생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윤회와 업만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업을 받아 윤회하는 생사의 반복은 그것이 선업을 받아 윤회하든 악업을 받아 윤회하든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생사윤회를 반복하여 되풀이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업을 받아 윤회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지상의 낙원
HAWAII
하 와 이

하와이 대원사 창건 기념법회 방문단 모집

일 시
1995. 10. 28 ~ 11.2

회 비
1인당 77만원

일정표

일자	지 역	일 정
제1일	서 울 하와이	김포공항 출발 하와이 도착 후 시내관광
제2일	하와이	대원사 창건 20주년 기념법회 동참(오전 10시 30분) 만찬회 및 축하공연(오후 5시~ 힐튼 하와이 빌리지 타파 볼룸)
제3일	하와이	다이아몬드 분화구, 한국지도마을, 폴리네시안 문화센터, 선셋비치, 사탕수수농장, 진주만, 오아후 섬
제4일	하와이	바람산, 국립묘지, 주지사관저, 이올라니 궁전 등 관광 후 와이키키 해변에서 휴식
제5일	하와이	하와이 호놀룰루 출발
제6일	서 울	서울 도착 후 해산

국제부

■ 인도 성지 순례
2,500여 년 전 부처님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인도, 인간 붓다의 고향, 수많은 생을 통해 모든 이치를 깨달은 곳.
→ 출발일:11월 7일, 11월 21일, 12월 5일, 12월 19일
※ 회비 : 192만원

■ 미얀마 성지 순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수행법, 위빠사나 단기수행.
→ 출발일:1995년 12월 24일 ~ 12월 29일(15박 16일)
※ 회비 : 140만원

■ 캄보니아 베트남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앙코르와트 사원 및 베트남 유적 순례.
→ 출발일:10월 6일, 11월 6일, 11월 20일
※ 회비 : 128만원

■ 인도네시아 보루부둘, 발리, 싱가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보루부둘 사원 및 발리, 싱가폴 순례
→ 출발일:10월 17일
※ 회비 : 105만원

국내사찰순례

■ 삼도사찰순례(당일)
※ 회비 : 30,000원
→ 출발일 : 10월 3일(화요일, 음 윤8월 초아흐레)
참배지:양산 통도사, 김천 직지사, 천안 각원사
→ 출발일 : 10월 8일(일요일, 음 윤8월 14일)
참배지:김천 직지사, 천안 관덕사, 안성 칠장사
→ 출발일 : 10월 10일(화요일, 음 윤8월 16일)
참배지: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화성 용주사
→ 출발일 : 10월 21일(토요일, 음 윤8월 27일)
참배지:변산 내소사, 공주 신원사, 평택 심복사,

■ 선산 죽장사 생전 예수재 회향(1박 2일)
※ 회비 : 30,000원
→ 출발일 : 9월 30일(토요일, 음 윤8월 6일)

■ 해인사 보살계 수계살림 동참(1박 2일)
※ 회비 : 30,000원
→ 출발일 : 10월 17일(화요일, 음 윤8월 23일)

■ 설악산 봉정암 야간산행(무박 2일)
※ 회비 : 35,000원
→ 출발일 : 10월 7일(토요일, 음 윤8월 13일)

※ 최신형 전세버스 다량 보유

(주)수미산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 2층
국제부: (02)720-3241~7 /국내부:732-0181~3
국외여행업 등록 제358호

'전문승'이 의료·출판·모연등 맡아

고려사원의 조직·농지관리 고찰논문 2편 눈길

고려시대 사원의 관리조직과 인적 구성, 사원전(寺院田)경영 등을 밝힌 논문 두편이 동시에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주산업대 한기문교수와 울산대 강사 김형수씨가 한국중세사연구회(회장 김윤곤 영남대교수)의 학술지인 〈한국중세사연구〉 제2호에 발표한 '고려시대 사원내의 관리조직과 소속승의 구성'과 '고려전기 사원전경영과 수원승도(隨院僧徒)'가 그것.

고려시대 사원의 인적 기반을 밝힌 한기문교수는 삼강직제(三綱職制) 등 사원내 관리조직을 비롯, 학승과 전문승(專門僧) 등의 인적 구성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한교수에 따르면 고려시대 각 사원내의 조직은 삼강조직으로 통칭된다. 신앙이나 수도보다는 사원내의 재정살림을 주로 맡은 이 조직은 사원내 학승의 수행을 위한 여러 서무와 사역인의 통솔, 사찰재정을 관리하였다.

고려초 삼강직제에 의하면 원주(院主)는 사원의 서무를 총괄했고 전좌(典座)는 의식과 기식을 담당했으며 직세(直歲)는 수취를, 유나(維那)는 사역인을 동원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또 사원 재정에서 보(寶)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를 관리하는 보장(寶長)과 색장(色掌)의 직제가 생겨나고 이들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변화도 있었다.

사원에는 학승 이외도 상례와 제례, 의료나 사원장엄의 고급기술, 출판을 맡은 전문승이 있었으며 불사에 세속인의 모연(募緣)을 유도하는 동량승(棟梁僧)이 있었다. 특히 사원의 보수와 불구제작과 관련된 공장승(工匠僧)과 사원의 전지(田地)를 경작하다 사원의 토목공사 혹은 승병으로 징발되기도 하고 사원의 후광을 업고 장사를 하기도 하는 이들인 수원승도는 사원의 가장 중요한 노동력이었다.

지금까지 고려초 사원내의 관리조직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시도되었으나 고려시대 선반에 걸쳐 존재했을 관리조직을 복원하보려는 시도는 아직 없었다. 소속승려의 구성에 대해서도 수원승도를 중심으로 연구된 적은 있지만 의승(醫僧) 술승(術僧) 지리업승인(地理業僧人) 등 전문승까지 다뤄지진 않았다.

한편 처음으로 사원전 경영에 있어서의 생산관계와 일반적인 고려시기 생산력을 결부시켜 연구한 김형수씨는 고려시기 민들이 사원에 예속되어 생활하게 된 배경과 사원예속민의 생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명했다.

김씨는 수원승도와 관련, 보와 구휼(救恤)을 통한 농민지배로 규정하고 도솔사 통도사 정혜사 등을 대표적인 예로 선정하여 사원의 농민·향촌지배가 어떠한 형식으로 이뤄졌는가를 분석했다. 김씨는 사원전의 경영을 크게 장(莊) 및 소유지와 수조지(收租地)에서의 경영으로 나누고 농업생산력적인 관점에 입각, 사원전의 경영형태를 설명했다.

김재경 기자

충청지역, 인쇄문화 이끌었다

개태사 '범서…' 최초간행…불서통해 기술 전승

이세열씨 주장

세계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든 충청지역이 고려 조선시대에도 사찰을 중심으로 인쇄문화를 선도해 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주성전문대 도서관 열람계장 이세열씨가 청주고인쇄박물관의 학술논문집 〈고인쇄〉 제2집에 발표한 '충청지역 사찰판본고(板本考)'에 따르면 충청지역이 인쇄문화의 본고장이었으며 인쇄문화는 사찰 간행물에 의해 기술이 전수계승됐다는 주장이다.

고려 고종 5년(1218) 영산 개태사에서 간행된 〈범서총지집(梵書摠持集)〉이 충청지역에서 최초로 간행된 후 고려 우왕 3년(1377) 청주 흥덕사에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과 〈자비도량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가 제작됐다.

이처럼 고려시대 충청지역은 공주 연산 청주 충주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8종의 전적(典籍)이 간행됐으며 특히 충주에서 불서가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

조선시대는 충청권에서 22개 지역 44개 사찰에서 1백70여종의 불서 및 일반서적을 만들었다. 가장 인쇄물이 많이 나온 지역은 공주로 7개 사찰 37종이며 충북에서는 법주사등이 있는 보은에서 4개 사찰 18종이 출간돼 가장 많다.

불교서적 간행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천5백에서 1천6백년대가 많고 조선초기에는 거의 간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불교서적중에는 〈묘법연화경〉등 경전이 많은데 실학사상과 천주교가 도입되는 조선후기 이후에는 간행이 거의 중단됐다는 분석이다.



◇충남 공주 마곡사 소장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1(보물 269호).

"실업청소년 선도정책 절실"

청소년개발원 세미나서 김영모교수 제기

가난하고 소외된 실업청소년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청소년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 김영모교수는 지난 20일 한국청소년개발원 주최 '청소년정책의 역사와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같은 주제의 기조발표를 통해 "현재 각종 사회정책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이 전체 청소년의 5할이나 된다"며 "이들을 위한 청소년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또 △자치단체별 청소년수련원 분산·전문화 △대중매체를 통한 건전한 청소년문화 보급 △사회봉사정보센타 설립 △각 대학에 청소년(지도)학과 설치 △청소년정책의 민간주도화 등을 제안했다.

귀일심원 요익중생하란 뜻은

문 원효스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귀일심원 요익중생(歸一心源 饒益衆生)'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뜻으로 이해하면 '일심의 근본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생명있는 모든 것들에 봉사하고 이익이 되게 하라'는 말씀인데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순효·서울 강남구 역삼동〉

답 쉽게 말한다면 마음을 모아 원을 세워서 그 마음 들이고 낸다면 두루 이익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찰나찰나 들고나며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일체를 한 마음에 놓고 둘로 보지 않으며 그냥 행하고 말하고…그렇게 하면 일체를 향해 보시행을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지요.

일체는 각각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로 돌아가면서 근본자리로 들고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 아닌게 없고 내 아픔 아닌게 없고 안과 밖의 문이 따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때만 문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설 때도 문입니다. 그렇기에 안과 밖이 따로따로라느니, 바깥이다 아니다라느니 하는 건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들어올 때가 되면 들어오고 나갈 때가 되면 나가는 것이니 따질 것도 없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귀일심원'하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문자풀이에 매달리실 것은 없습니다. 한마음 근본자리에 턱놓고 있다 없다, 안이다 밖이다 따지지 말고 닥쳐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쓰고 행하십시요. 그렇게 맡겨놓은 줄 알면 그대로가 여법하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30년 피워온 담배를 끊고 싶은데

문 담배를 끊어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30년 경력의 오랜 습때문인지 금연이 되지를 않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것 같아 완전히 끊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류경춘·인천시 부평동〉

답 제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셨다니 또 무슨 방법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처사님 스스로 해결하셔야 하겠지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그 모습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누가 담배를 피우라고 권했습니까? 담배를 끊어보시겠다는데 끊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고 끊으려 하면서도 계속 피워무는 것은 또 누가하는 것입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은 무엇이며 누가 시키는 것입니까?

습이라고 쉽게 말씀하시는데 그 습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담배를 맛보는 식, 냄새 맡는 식, 보는 식, 느끼는 식, 그 식이 쌓여서 습이 된 셈인데 나온 자리에 되놓는다는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녹음된 테이프를 지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마음을 먹어야 하겠지요? 바로 나온 자리를 알고 되놓는 작업 말입니다.

담배를 피우게 한 것도 그 마음자리에서 나온 것이고 안 피우게 하는 것도 그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것이니 늘 말씀드리지만 '피우게 하는 것도 네놈, 안피우게 하는 것도 네놈이니 알아서 하라'고 그냥 콱 맡겨보세요.

놓으려면 그냥 몰락 놓아야지 놓는 시늉만 했다가 다시 들곤 하니 이게 지워지기는 커녕 잡음만 자꾸 입력하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지나간 호의 문답들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상선원

진실이 소외된 세상에 일침

김용사

崔殘枯木依寒林
(최잔고목의한림)
幾度逢春不變心
(기도봉춘불변심)
樵客過之猶不顧
(초객과지유불고)
郢人那得苦追尋
(영인나득고추심)

꺾어진 고목이 찬 숲을 의지하고
몇번이나 봄을 만나도 그 마음 변치않네
나무꾼 지나쳐도 돌아보고 그냥가니
영인이 와서 그 고난을 살펴 노래하네

해설 김용사 상선원은 선방이다. 스님들이 불성을 깨닫기 위해 화두를 들고 용맹정진하는 수행방인 것이다. 이 상선원에서는 현대의 최고승인 성철스님도 꽤 오래 선수행을 했었다. 그리 크지 않은 선방은 앞쪽 기둥에 붙은 이 주련이 있으므로해서 더욱 그윽한 선수행도량의 풍치를 말해 준다.

꺾어진 고목은 이미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밖에 밀려있다. 세월이 흘러도 마찬가지로 꺾어진 고목 등걸에 다름아닌채 그곳에 흘로있는 것이다. 때문에 나무꾼도 지나가며 눈여겨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죽어간 나무의 소외된 마음을 한날 '영인(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관심을 갖고 노래를 부른다.

어찌보면 매우 평상적인 귀절이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진리가 이 주련의 내용속에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소외된 진실'의 문제다. 표현은 꺾어진 고목등걸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진리의 세계'를 비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이 외면된 사회, 각종 거짓이 득세를 하는 세상, 세월이 흘러가도 그 악의 순환은 그침이 없다.



◇스님들의 수행방인 상선원과 주련.

소외된 진실, 그 맑은 진리의 묘체를 깨달아 이 사회에 전해 줄 '영인'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김용사 상선원에서 참선수행에 몰입하는 수좌들이 종내에는 '영인'이 되어 진리의 노래를 부를 것임을 믿는다. 〈안동 경안중 교사〉



경 축

국씨전영양소 후원으로 세계 여자 역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다

★일시 : 1995년 11월 ★장소 : 중국(광주)

세계인을 위한

다 이 어 트

5일 복용이면 3~5kg이상의 감량 !

- 건강관리, 체력보강, 체력유지, 비만해소 100% 효과 보장
- 비만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고혈압·당뇨·변비에도 탁월한 효과
- 10kg 미만 체중감량은 무조건 10일이면 끝
- 여러 제품으로 실패한 분들께 필히 권합니다



※약국, 피부관리에서 취급가능함

국씨전영양소란?

중국의 저명하신 다이어트 전문가인 **북경대 국민원 교수**가 주관하고 의학과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이 협조한 가운데 비만자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특수 한방비법으로 제조한 세계 최초의 완전 천연, 영양 농축다이어트 식품. **중국 여자 역도선수들이 체중조절 및 영양식품으로 복용한 후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복용 5일이면 최저 3kg에서 5kg 이상** 체중이 감량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되면서 체질개선, 혈액순환은 물론 **노폐물까지 제거**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능과 성장발육**을 촉진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한번 감량되면 다시 비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오히려 허약자에게는 영양 많은 식품으로서 건강관리에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높다. 중국, 미국과 합자하여 만든 제품.

信心이 돈독한 佛子로서 악간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확실한 수입이 보장된 국씨전영양소 사업에 동참할 한분을 초빙합니다. Mr. 박



개발자 국민원 교수(박사)약력

1973년~1978년 북경대학에서 식물학 연구
1978년 북경 영양연구소 입소
1978년 中南海(중국 고위 간부 주거지/모택동 등소명 등 역대 중국고위관리) 食品營養 고문 임명. 현 재임중
1985년 감비식품 연구 착수
1992년 8년만에 국씨전영양소 개발완료 현 북경대 교수

세계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제품
한국에도 본격 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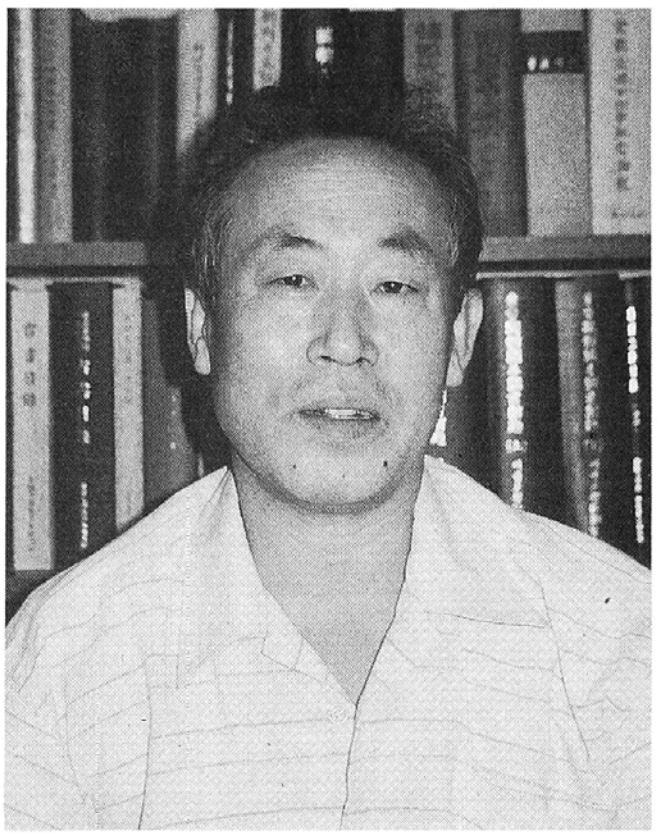
정 우 무 역
전화:(02) 929-0211~4

이제 다이어트는
국씨전영양소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책이 바로 양서"

독서주간에 만난 불자장서가 박 영 돈 씨

수요 인터뷰



책은 스승…독서 안하면 낙오되는 사회 풍토돼야

국졸 후 독학…일연스님 문헌찾아 20년동안 몰두

낮에는 하늘이 높고 밤에는 풀벌레 소리가 정겹다.

천고마비(天高馬肥)가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나타내는 말이라면 등화가친(燈火可親)은 책읽기 좋은 철이란 뜻이다.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인 것이다. 18일부터 한주간이 굳이 '독서의 주간'이 아니더라도.

국민학교 졸업장 밖에 갖지 못했으며 전직 은행수위 출신인 박영돈씨(60). 독학을 하며 책읽기에 흠뻑 젖어 이미 7년에 대한출판문화협회로부터 장서가상을 받았던 박씨는 20여년째 일연(一然)스님의 비문 원형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일연스님 관련 자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박씨는 그간 1만여권의 책을 모으며 '책속의 길'을 두루 편력한 독서가이자 장서가이다. 독서주간에 화곡2동 그의 서재에서 만났다.

손때묻은 만여권 '재산'

—독학을 해야 했던 여건이 장서가가 되게 한 것 같군요.

▲따로 장서가란 이름을 듣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혼자 공부하던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할 수 밖에 없었지요. 내게 있어 스승은 오직 책 밖에 없었으니까요. 그저 필요한 책들을 사다 읽고 모으다 보니까 나중엔 체계적인 서적 관리법도 배워야 하고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를 가늠하는 눈도 떠지더군요.

—요즘은 독서도 유행을 타는 것 같은데요.

▲광고 덕분이겠지요. 책 자체가 상품화 된지는 이미 오래된 얘기잖아요. 나쁘다고야 할 수 없지요. 양질의 상품을 만들고 다수에게 홍보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가슴 아픔니다. 결국은 책을 고르는 사람들의 안목에 달린 것인데 유행이 최상은 아니지요. 내 경험에 비춰 본다면 가장 좋은 책은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책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책이 그 순간 최고의 양서란 것이죠.

—좋은 책을 골라 읽는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내게 지금 필요한 책이 좋은 책이라고 얘기 했듯이 그저 필요할 때 구해서 읽는 것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작정 필요하다거나 궁금하다는 것보다는 자신의 독서 목표가 미리 서 있어야 합니다. 문학서건 기술서건 아니면 역사서이건 자신의 관심사에 따른 분명한 목표의식과 수준의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독서주간이라고 '책을 읽자'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 큰 서점은 행사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책을 적게 읽는 국민이란 소리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없는 것 보다야 그런 독서주간이 있는 것이 좋겠지만 따로 독서주간이 필요하다면 그건 그만큼 책 안읽는 국민임을 알리는 일일뿐이지요. 1년 내내 독서주간이어야 합니다. 1주일짜리 독서주간에만 책 읽고 나머지 시간은 안읽어도 된다는 건 아니잖습니까. 단발적인 독서운동 보다는 책을 읽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책 읽으라고 막연히 권하는 입은 많아도 '무엇을 어떻게 읽으라'는 충고나 '왜 읽어야 하느냐'라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소리는 흔치 않은 것 자체도 속히 시정돼야 할 문제고요.

—선생님께서는 왜 책을 읽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내게 있어 책이 스승이었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책은 스승입니다.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살고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지혜를 배우고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책 읽기는 지식쌓기 보다 지혜가꾸기란 측면에서 권장돼야한다는게 나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지혜가꾸기 독서는 불교서적이 합당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올바른 독서지도 방법을 든다면.

▲집안 분위기 자체를 책읽는 쪽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부모가 늘 책을 읽는데 자녀들이 따라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어릴때부터 책 읽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으로 자녀의 생각 방향이나 이해수준등을 생각해 함께 토론을 하는 것이 순서일테지요.

—학생들이 공부에 매달려 교과서나 참고서 이외의 책 읽기는 등한시해 온 것이 교육제도의 잘못이란 반성도 많았습니다. 이제 교육개혁도 이야기 되고 있으니 청소년 독서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면허증(졸업장)만 있으면 먹고 산다는 식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평생을 읽고 연구해야 한다는 사회의식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직장의 고용주들도 많은 자각이 있어야겠지요.

지식보다 지혜 가꾸기

—선생님께서 소장하신 책들은 대개 어떤 것들입니까.

▲젊어서 모은 책은 대부분 문학서적이었습니다. 문학이 좋아 닥치는대로 구해다 읽었는데 점차 문화사쪽으로 관심이 기울더군요. 그때부터 주로 문화사 관련 책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일연스님을 만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의 효성과 그가 남긴 삼국유사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에 반해버렸지요. '일연'이나 '삼국유사'란 글자가 들어있는 문헌이라면 무엇이든 구해다 읽게 됐는데 그것은 관심있는 분야의 도서는 모두 섭렵하려는 나의 욕심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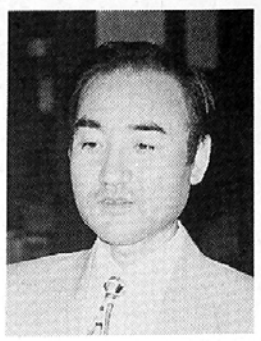
—많은 도서를 모아두고 읽고 지내시면서 특별히 일연스님의 비문 원형찾기에 몰두하고 계시는데요. 책을 모으는 기쁨과 한 분야에 몰두하는 까닭을 듣고 싶습니다.

▲책이야 읽고 싶을 때 구해다 읽으면 된다지만 늘 서점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젊어서부터 전국 도시의 헌책방을 뒤지며 삶의 즐거움을 찾았지요. 오랫동안 찾던 책을 케케한 먼지 속에서 찾았을때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일연스님에 대해서는 매우 인간적이었던 수행자란 점에 매료되어 빠져들었는데 반드시 그분의 비문을 완전하게 복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해야할 일이기에 내가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의 전부일뿐입니다.

임연태 기자

나의 수행일기

이광준 〈동서심리학연구소장〉



'사는게 뭔지' 의문 풀려고 입문

禪 수련으로 건강 되찾고 선 심리학 전공

누구나 꿈많은 청소년 시절, 아마도 중학교 3학년 때라고 생각된다. 동네 젊은이들이 책읽기를 권장한다고 그 어렵던 옛날에 돈 몇푼씩을 모아서 책을 사다가 독서회를 만든 적이 있었다.

나는 이 독서회 덕분에 어렵지 않게 책을 접하면서 우연히 인도의 대문호인 타고르의 시집을 읽으면서 알듯 모를듯한 진리의 세계를 접한 느낌이었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봄날, 여름날에 짬이 생기면 타고르의 시집을 들고 시골마을의 뒷산 잔디밭에 누워 시를 읽으며 시에 담긴 심오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상념에 잠긴 때가 많았다.

그때 내가 사는 시골동네에서 2km 정도 떨어진 마을 뒷산에는 작은 절이 하나 있었다. 집안 아이들 생일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님이나 큰 형수님이 그 절에 들러 불공을 드리고, 부처님께 올린 공양이라며 떡을 가져와서는 나눠주시곤 하셨다.



순진하기 이를 데 없던 그시절에 그 떡을 먹으면 부처님의 사랑과 복을 받고 몸에도 그럴 수 없이 좋아서 피와 살이 되고 건강해져 소원성취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어서인지 왜그리 맛이 좋았던지….

이러한 어릴적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인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자연스레 다가왔다. 18세 때라고 생각된다. 그 나이 쯤이면 누구나 정신적인 방황을 하게 되고 인생과 인간이 무엇인지를 수없이 되묻게 되는 시절이기도 하다.

간간이 불교서적을 읽어서인지 나는 더욱 인간의 근본문제에 관심을 쏟았던 것 같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하루하루 현실에 끄달려 살아가는 모습이 더욱 애처롭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다 나이 20이 되어서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 고민하게 되었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사는게 무엇인지를 묻는 공부에는 불교공부가 제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어 불교에 정식으로 입문하게 되었다.

동국대에서 대불련활동을 하면서는 불교는 그 학문에 있어서나 실질에 있어서나 보물섬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불교는 학문을 떠난 진정한 학문이라는 생각이었다.

내가 진정한 불교를 느끼게 된 계기는 대불련 활동을 통해 해인사 선방에서 가졌던 참선수련회였다. 강주스님의 참선지도를 통해 선이 무엇이며, 어묵동정(語默動靜) 행주좌와(行住坐臥) 동안에도 참선은 계속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 귀에 사무쳤다.

이를 계기로 나는 습관처럼 어느 장소, 어느 때에라도 '선'을 생활화하게 되었다. 망상이 떠오르거나 머리가 아플 때도 '이뭣고'를 찾게 되었다. 선과 심리학을 주제로 한 연구도 이를 계기로 지속된 것이다.

계속 참선을 한 덕분으로 건강치 못한 내 육체도 정신과 함께 든든해졌다. 이제는 최소한의 수면으로도 생활의 피로를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번뇌망상은 심리적 에너지를 소비해 사람을 피로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선정(禪定)에 들면 이 심리적 에너지를 보존하게 되어 정신은 물론 몸도 피로하지 않게 된다.

참선은 그야말로 내 정신과 신체적 인격적 성숙을 도와준 훌륭한 부처님의 방편이었다. 내년까지 집필이 완료될 〈한국인의 심리구조와 선심리학〉도 그간 행해 온 선수련의 도움을 입은 것이다.

이제는 어느정도 타고르가 읊은 시 구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시아가 불교문화로 꽃을 피우고 서로 손을 잡고 번성할 때에 한국 또한 민족의 역량을 한껏 발휘하였고, 태양이 떴다가는 다시 지고 또다시 떠오르듯이 2차대전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한국과 아시아는 또다시 문명의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라는 내용이다.

불교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국제화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고도정보화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불교가 이 시대에 보조를 맞춰가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조류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제는 종교학으로서의 불교학도 신앙하는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불교를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참선을 비롯한 수련이 생활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황금빛 도자기 불상 지금 선택하십시오



(7치 : 23.1cm) (5치 : 17.5cm) (1자 : 33cm)

일천불 조성 삼천불 조성 일만불 조성

(주)국보도자기, 국보기획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 B/D 301호
▒ 공장 :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장심리
▒ 전화 : (02)723~4260/1, FAX : (02)723~4260

대 표 권 영 천 합 장

장인의 혼과 얼을 담았습니다

—직접 손으로 흙을 빚어 1380℃에서 구워낸 도자기불상 입니다.—

새로 개발한 사람의 손으로 직접 빚어 도자기로 만든 불상입니다.
도자기로 만든 불상을 조성해 볼 계획이 없으신지요.

다시 푸는 경서 — 처문경훈 〈29〉

孤山圓法師 示學徒 (고산원법사 시학도) ③

抑又戒慧分宗 大小異學 悉自佛心而派出
억우계혜분종 대소이학 실자불심이파출
意存法界而同歸 旣而未曉大猷
의존법계이동귀 기이미효대유
於是 各權所據 習猛論則以戒律 爲麄物
어시 각권소거 습경론즉이계율 위기물
宗律部則以經論 爲憑據
종률부즉이경론 위빙허

또한 계와 혜로 종을 나누어(율종과 논종) 대소간에 다른 것 같으나 모두 다 불심으로 부터 나온 것이니

뜻을 법계에 두고 하나로 돌아갈 것이거늘(삼승 귀일) 기왕에 큰 법을 깨치지 못했는지라

이에 각기 근거하는 바에 매달려 경론을 익힌 즉 계율을 버릴 물건이라 하고,

율종을 으뜸 삼은 즉 경론을 쓸데 없는 일이라 한다.

習大法者則 滅沒小乘
습대법자즉 멸몰소승
聽小乘者則輕毁大法
청소승자즉경훼대법

대승법을 익힌 이는 소승을 묵살하고는 게 없고 백관의 일이 다 왕을 위함과 같다(여러 종파의 가르치는 일이 다 부처님을 향하는 것이다).

한 종파를 수호하기 위해 뭇 흐름을 가로 막고 한 관직을 지키고자 여러 벼슬자리 폐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原夫法王之垂化也 總攝群品 各有司存
원부법왕지수화야 총섭군품 각유사존
小律 比禮刑之權 大乘 類治衡之任
소률 비례형지권 대승 류균형지임
營福 如同於遭輓 製撰 若掌於王言
영복 여사어조만 제찬 약장어왕언
在國家之百吏咸修 類我教之群宗 競演
재국가지백리함수 류아교지군종 경연
果明此旨 豈執異端
과명차지 기집이단

대개 법왕이 교화를 함에(드리움에) 모든 계층을 다 포섭하여 각기 관할을 두게 하니 소승·율종은 예·형의 권한(요즈음의 문교·법무권한)에 비교되고 대승은 저울 같은 소임(총리역할)이요

복을 다스림은 배나 수레를 운전하는 것과 같고 글을 지음은 임금의 말을 기록함과 같다.

나라에서 백관에 다 수행할 바가 있

"너와 나 둘로 보지않고 화합바다 이루면 서로 서로 제도하여 인연 무르익으리라"

소승법을 들은 이는 대승을 업신여기나니

但見人師 偏讚 遂執之而互相是非
단견인사 편찬 수집지이호상시비
豈知佛意常融 苟達之而不見彼此
기지불의상융 구달지이불견피차
應當互相成濟 共熟機緣
응당호상성제 공숙기연

다만 스승이 치우쳐 좋다고 한 것만 보고 드디어는 이에 국집하여 서로간에 옳다 그르다 한다.

어찌 부처님의 뜻에 늘 융합한다 하겠는가.

진실로 통달하여 너와 나를 둘로 보지 아니하면 마땅히 서로 서로 제도하여 함께 기연이 무르익으리라.

其猶萬派朝宗 無非到海
기유만파조종 무비도해
百官理事 咸曰勤王
백관리사 함왈근왕
未見護一派而擬壅衆流 守一官而欲廢
미견호일파이의색중류 수일관이욕폐
庶績
서적

비유하건대 만파조종(많은 제후가 임금을 배알하듯이)이 바다에 이르지 않는 것은 우리 교의 여러 종파가 다투어 법을 펴는 것과 같으니

이 뜻을 밝혀보면 어찌 (서로서로) 이단이라 고집하겠는가.

當須量己才能 隨力演布
당수량기재능 수력연포
性欲則兼學 修善 識淺則難門 是宜
성민칙겸학 위선 식천즉전문 시의
若然者 雖各播風猷
약연자 수각파풍유
而共成慈濟 同歸海合之海 共坐解脫之床
이공성자제 동귀화합지해 공좌해탈지상
夫如是則眞迷途之指南 教門之木鐸也
부여시즉진미도지지남 교문지목탁야

모름지기 자기의 재능을 헤아려 힘에 따라 널리 포교함이 마땅하되

성품이 영민하면 겸하여 배우는게 좋고 식견이 얕은 이는 오로지 한 문에 전력함이 마땅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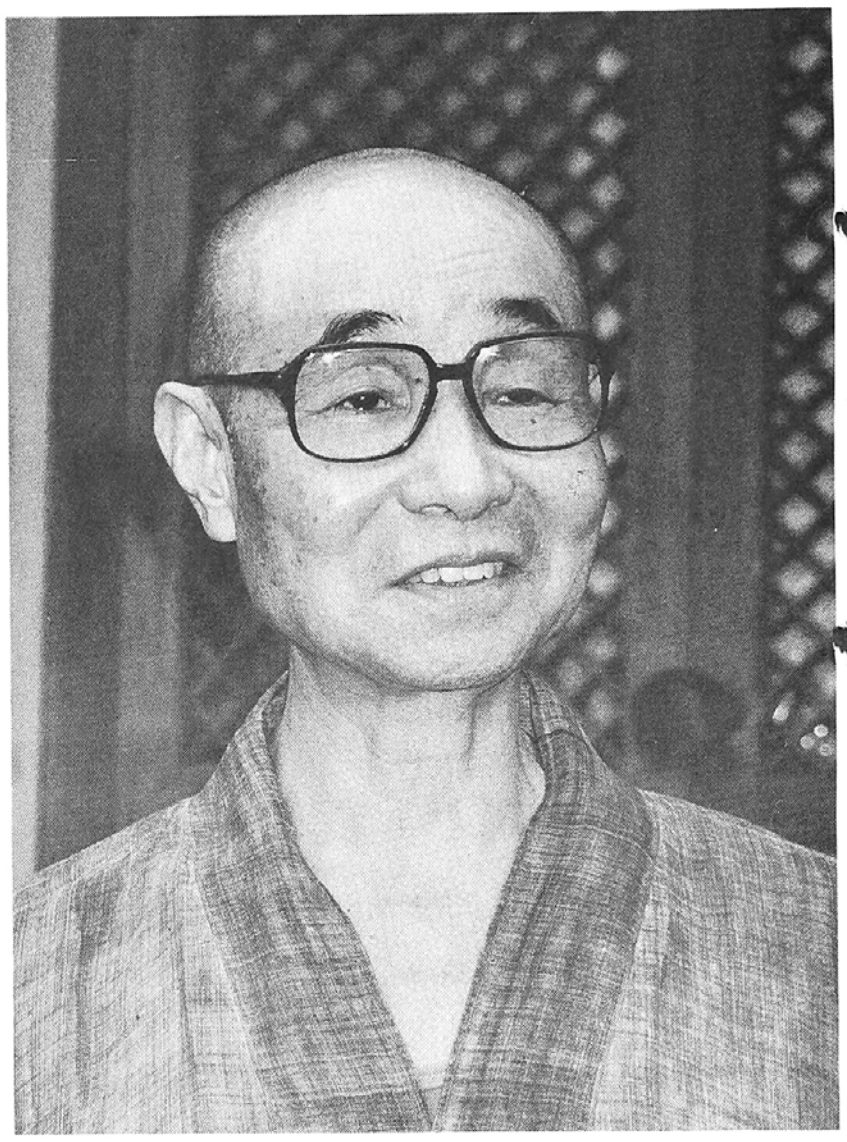
만약 그리할진대 비록 각자가 (제 능력껏) 마음의 씨를 뿌리더라도 함께 자비로 제도하여 한가지로 화합의 바다에 돌아들며, 함께 해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니 무릇 이와같은 즉 진실로 미혹의 길에 지남철이 되고 (천차 만별의) 교문에서는 목탁이 될 것이다.

龍眼

지상법석

"평소 행동 생각이

지유스님 〈원효암 주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순간은 자신이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자기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보고 있다니까 깨달은 사람이나 마음을 볼 수 있지 어떻게 중생들이 마음을 볼수 있느냐고 보통사람들은 말합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알았다해서 비로소 물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물속에서 살게되고, 그것을 몰랐다해서 물밖에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항상 물속에 있습니다. 그와같이 우리가 지금 조용히 앉아 있어보면 그것이 공부가 되었던 안되었던, 괴롭던 괴롭지 않던, 깨달았던 깨닫지 않았던 간에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마음 속을 들여다 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고있는 것입니다.

왜 이리 피곤한지 왜 이리 불안한지 편안한지 느낍니다. 그러나 남의 마음이 왜 피곤하고 괴로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아니라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속의 생각을 남은 모르지만 자신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조용히 좌선을 하려고 앉아 있으면 무엇인가 괜히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닫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누구든 항상 자기 마음속을 보고 있습니다.

조용히 좌선하고 있을 때의 그 모습은

"우리가 깨어 있으면
소리나면 소리인줄 알고
냄새나면 냄새인줄 압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은
소리도 냄새도 모릅니다"

환자가 내 몸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 진찰대에 자신을 올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진찰해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내면의 움직임과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느낄수 있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5분동안이라도 앉아보면 느낀대로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온갖 번뇌망상과 앞으로 있을 일이 짧은 순간 영화의 화면처럼 스쳐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을 일으킬 때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을때는 생각을 놓아버리고 모든 것을 초월해 본심에 돌아가 있습니다.

어떤사람은 죽비치고 앉아있는 그 순간부터 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정하고 있을 때의 자기 마음 속과 입정에서 나온 이후의 마음 속을 스스로 비교해 본다면 그것은 이미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면 이렇게 내마음속에 혼침이 많은가 하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잠이 많다는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잠도 오지 않는데 어찌 앉기만 하면 온갖 망상이 일어나는가 하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망상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을때는 소리가 나면 소리 인줄 알게되고, 냄새가 나면 냄새인 줄 알게되고, 물건이 오면 물건인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은 소리가 나도 소리인 줄 모를 것이고 냄새가 나도 냄새인 줄 모를 것이며 물건이 와도 물건인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소리를 알고 냄새를 알고 물체있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그림자들이 오고가고 합니다. 자기 속의 온갖 그림자들이 오고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자신은 압니다. 잠자고 있는 무의식상태와 깨어있는 의식의 상태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모를 때 그것을 혼침이라 하고 혹은 그것을 묵의혼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깨어있을 때는 온갖 생각의 그림자인 번뇌망상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무의식 상태에 들어있으면 바로 혼침이 됩니다. 이 두가지 상태 즉 잠이 아니면 망상, 망상이 아니면 혼침, 이것이 오고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중에 어느쪽이 많으십니까. 양에 관계없이 바로 이 두가지가 자기마음 속의 장애물입니다.

번뇌가 가리고 있다해서 마음이 도망간 것은 아닙니다. 허공에 구름이 덮였다해서 허공이 도망간 것이 아니듯이 달입니다.

허공 속에 구름이 끼여 그 뒤의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 처럼, 마음 속에 혼침이 꽉 찼다 무의식상태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해서 마음이 어디로 도망간 것은 아닙니다.

혹 어떤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깊은 잠에 빠져있을때 내 마음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물건이 아니므로 잠에 빠졌다해서 멀리 떠난게 아닙니다. 마음은 오고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이 오고 갈 수 없듯

정성으로 올린 한잔의 차,
기쁨과 여유를 함께 마십니다



▶ 녹수청산은
엄선된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최고의 재료에서 최고의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녹수청산은
인스턴트 식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성어린 손길에서 맛있는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녹수청산은
오직 정성으로 차를 다립니다.

고객 여러분께 깊은 여유와
만족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 소모임, 불자들의 신행모임, 도심 특별 법회, 강연회 등에 장소를 빌려드립니다.

다원 녹수청산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 736-3782 ○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9, 84, 159, 331, 588-2

지상법석

그대로 업이 됩니다"

온갖 그림자가 오고가고 하는 것을 남은 모르지만 스스로는 자기 마음속을 보고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분별함은 스스로 구속하는 감옥 착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남 도우며 항상 공손

이 말입니다. 다만 허공에는 구름이 끼였다가 개이기도 하고, 비가 왔다가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마음 속에 번뇌망상이 오고 갔다가 무의식상태가 되기도 하며, 다시 의식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또 마음속의 내용이나 모양이 자꾸 달라지고 바뀐다 해서 마음이 오고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보면 생시와 똑같은 모양이 오고 가고, 물건을 보거나, 소리도 듣고, 음식도 먹고, 내몸이 오고가는 것도 그대로 나타나서 모든 감각이 생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시에 무서워하는 것들은 꿈에서도 역시 똑같습니다.그러나 막상 꿈을 깨고 보면 아무것도 오고 간 것이 없습니다. 꿈에 남에게 당했더라도 놀래서 꿈에서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꿈에선 사실대로 느낍니다. 느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돌이 물에 들어가자마자 그 파문이 한참 오래 갈듯 하지만 결국 없어지는 것처럼 흔적이 자기 마음에 남아서 무엇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의 생각이나 느낌이 꿈으로 모양으로 나타난다해서 마음자체가 오고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아무리 자기 속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마음이 같이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있던 생각들이 없어졌다고 해서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란 바로 자기자신입니다. 자기는 끝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난 일도 없습니다. 난 일이 없다는 것은 동시에 죽은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독송하다보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불생불멸, 부증불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란 물건이 아니라서 아무리 닦는다해도 맑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물건이 아니라서 때가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서 더럽다 깨끗하다 커졌다 작아졌다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공 속에 구름이 많으니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이지 허공 자체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또한 마음이란 것은 그 양을 도저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마음이라고 우리가 한계를 임의대로 나누어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크다고 한다면 마음보다 더 큰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이 큰 것이라 해서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치면 또 마음보다 작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잡으려고 해도 마음은 형체가 없어서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형사가 와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 무슨 일을 하던 아무도 본인자신을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속에 일어난 생각이 자기의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자신의 본모습을 가리다 보니 그것이 고통이 되고 여러가지 감정, 느낌으로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자기속에서 일어난 모든 생각과 번뇌망상은 그것이 그림자로 나타나거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소리가 되거나 빛이, 냄새가 되기도 합니다. 생각으로 나타난 것은 어디까지나 생각인데도 우리가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다 보니, 정말 자기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지배해서 나쁜 곳에 떨어뜨리거나 또 나를 좋은곳에 인도해 주거나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이 편안하게 해주고 똑같이 즐겁게 해줘야지 왜 편안한 사람, 괴로운 사람의 구별이 있는가 하고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을 해봤자 혼자 불평이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다 나쁘다하면서 구속받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구속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구속했다는 것은 자신 속에 일어난 생각이 자신을 괴롭힌 것입니다. 좋게 느끼거나 나쁘게 느끼거나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 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 자기 앞을 가리느냐에 따라 좋아지고 나빠지고 괴로워하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스스로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못하고 스스로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사로잡혀 끄달리고 괴롭다 괴롭다 하는지 처량하기만 합니다.

어느날 산에 있는 원숭이가 가만히 산밑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어떤 연못에 동그란 달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물에 비친 달은 진짜 달이 아니라 그림자인데도 환한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는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희귀한 달이 연못 속에 있구나!' 달이란 원래 하늘에 있는 것인줄 알았던 원숭이는 연못속에서 환한 빛을 뿜고 있는 달을 보고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원숭이들은 달이 항상 동그랗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달은 하루하루 모양이 변하고, 또 때때로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원숭이들은 어떻게 하면 저달을 잡아둘 수 있을까를 고심하던 끝에 문득 연못에 있던 달을 보고는 그것을 담아오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은 나무에 몸을 붙이고 사슬을 엮어 연못 속의 달을 건지려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달은 건져지지 않았습니다. 달은 그대로 물속에 그림자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원숭이가 달을 건지려 했을까요.

달인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림자인줄 알았다면 절대 그런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 속의 생각은 연못의 달처럼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지로 그런지 잠시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눈을 감자 마자 그림자의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다시 눈을 뜨고 보이는 대로 그에 맞춰 생각이 떠오릅니다. 잠자다 나타나는 생각은 꿈이요, 이 꿈은 생시와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믿지 못하는 것은 보통 인간의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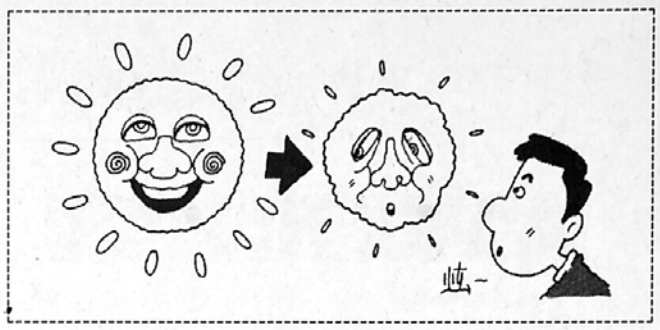
평소에 익힌 습성대로 이끌려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습성은 바로 우리의 업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노력하게 되면 우리의 나쁜 업생, 업도 차차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마음의 모든 번뇌망상,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구의 삼업 중 어느쪽으로 짖어왔냐 하는것.

말도 항상 선한 마음으로 하는 생활에 젖은 사람은 누구를 대하더라도 항상 공손하고, 남에게 부드럽게 대합니다. 그것은 익혀왔기 때문입니다. 정반대로 항상 남을 욕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은 남을 보면 한마디라도 좋게 말할 줄 모릅니다. 이것도 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된다 나쁘다 하는 것만 알더라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자신이 노력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한 생각을 놓아버리면, 좋은 쪽으로 돌리고 돌리고 하다보면 나쁜 습성이 저절로 일어났듯이 좋은 습성도 저절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결국 그 모든 업의 인과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잘 살고 행복하고 오래 살려면 남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근본마음을 돌이키고, 좋은 생각,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마음 속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로 부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과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남에게 이익주면 줄수록 부처님 자리에 가까이 갑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40

양 형 진

성주괴공 Ⅱ

"풀잎 썩은 자리에 다시 새싹 돋아나듯 우주전체는 연기법따라 질서있게 생멸"

별이 아무리 크더라도 가지고 있는 수소의 양은 유한한 것이므로 언젠가는 핵융합 반응의 원료가 되는 수소를 다 쓰게 될 것이다. 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소를 거의 다 사용하게 되면 매우 불안정해 지면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다. 이 때 대부분의 별들은 적색거성(赤色巨星)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한다. 이 단계의 별은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핵과 외피로 구성되게 되는데, 중심부에서의 수소 원료는 고갈된 상태이고, 외피는 원래 크기의 100배 정도까지 팽창된다. 이 단계에서 강한 대류작용에 의해 별의 일부가 밖으로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완료되면 중심부에서 발산되는 열기가 사라지면서 외부에 있던 질량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별 자체의 중력에 의해 별 전체가 중심부로 함몰하여 높은 밀도의 백색왜성(白色矮星)이 된다. 대부분의 별들은 핵융합 반응의 원료인 수소를 다 사용하고 백색왜성으로 최후의 단계를 맞게 된다고 한다. 이는 질량이 비교적 적은 별의 최후이다.

그러나 질량이 매우 큰 별들은 훨씬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수소 원료가 고갈되고 나면, 수소 원자에 의해 생성된 헬륨 원자핵이 다시 결합하여 탄소 원자핵을 만들어 내는 새로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반응이 끝나게 되면 다시 이 탄소 원자를 원료로 하여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 내는 핵융합 반응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단계의 핵융합 반응을 거쳐 연료가 다 소비되고 나면 자체중력에 의하여 극히 짧은 순간에 격렬하나 수축이 일어나다가 폭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별은 며칠간 대단히 밝은 빛을 내게 되고 별을 이루는 대부분의 물질은 외부 공간으로 날아가고 만다. 이를 초신성 폭발이라 한다.

이 폭발의 잔해는 (1α단 100만톤 정도 되는) 대단히 밀도가 높은 물체 덩어리가 되는데, 이는 반지름이 수십㎞정도 밖에 되지 않고 초당 수십회 정도 자전하는 (중성자 만으로 이루어진) 별이 된다. 이는 중성자 만으로 이루어진 중성자 별이라고 추측된다.

만약에 별의 질량이 대단히 커서 중력에 의한 수축압력이 너무 커서 중성자의 형태조차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중심핵 주위의 중력은 너무도 커서 빛 조차도 이 중력을 이겨내면서 이 별에서 탈출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블랙홀이라고 한다. 이 블랙홀에서는 빛이 새어나오지 않으므로 오직 간접적인 관측만이 가능하게 된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대개 비슷하게 태어나지만 죽는 모습은 서로 상당히 다르듯이, 별도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이나 그 결과는 이처럼 서로 상당히 다르다.

이제 복잡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하여 보자. 어제 떴던 태양은 오늘도 우리의 세계를 비추고 있지만, 어제의 태양은 오늘의 태양과는 다르다. 태양은 분명히 조금씩 변해가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조금씩 나이를 먹어간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듯이 태양도 50억년 후의 어느 날 더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풀잎이 썩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다음 해의 어느 따스한 봄날 새 싹이 솟아나듯이, 이 우주 어디에선가는 새로운 태양이 바로 그 순간 생기고 있을 것이다. 부증불감이다. 중도의 입장에서 볼 때 생멸은 오직 원융하여 무애할 뿐이다.

성주괴공이라는 우주의 원리는 우주의 구석구석 어느 곳 하나에서도 어긋남이 없다.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보는 유기적 생명체만의 일이 아니다. 작게는 유기 생명체에서부터 크게는 삼천대천세계의 그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들 전부는 하나의 예외도 없이 공으로 부터 인연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흩어지면 그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우주의 원리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 일체는 다 우리와 같은 생명이다. 그들 일체의 하나하나 돌아가는 모습은 그 어느것 하나 예외없이 연기법을 들려주는 부처님의 음성이며, 그들이 살아가는 이 우주 전체는 바로 법음이 울리는 법당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교수 · 물리학과〉

수련원 양도합니다

서울에서 1시간 30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山水가 완벽함.
대형빠스가 마당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포장이 되어있고 수련원 및 노후복지시설로 최고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현재 신도의존하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도록 고시생을 위한 방 21개와 일반 수양객을 위한 최신 현대시설을갖춘 17개의 방과 주지실 20평을 제외한 식당 및 일반불자를 위한 80평과 법당 130평의 건축물이 있음.

자세한 내력

■부 지 : 1만평
■건축물 : 법당 → 130평
식당칸 → 80평
요사 → 140평
방 → 5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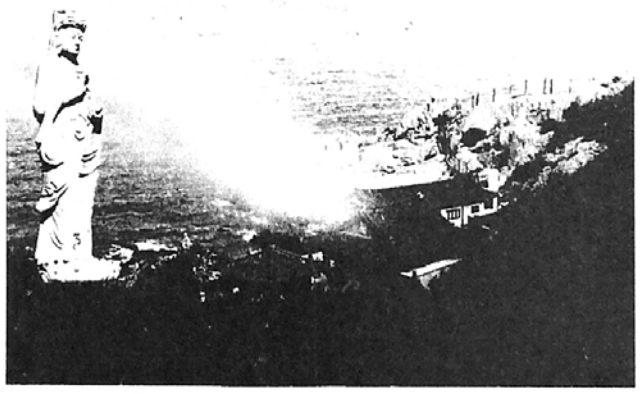
●참고 : 부동산 중개인 불필요
소요 당사자 연락바람

연락처 : 02) 233-2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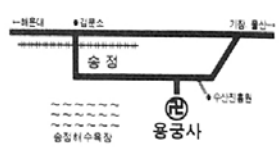
한가지 소원을 꼭이루는

海水觀音 방생도량

해동용궁사는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바다가 펼쳐진 절경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진신〈眞身〉이 상주하시는 관음기도도량이며 방생도량입니다.
금번용궁사에서는 관음대불을 봉안하옵고 많은 기적과 불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궁사는 특히 삼사순례나 방생법회를 하시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하오니
전국의 주지스님과 신도님께서 방문하시면 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무료
대형주차장 완비
방생물 예약 준비해 드림
해운대 - 용궁사 10분 거리



海東龍宮寺 기도영험도량

용궁사 오시는 길 해운대 달맞이길 →송정해수욕장→용궁사 ☎(0523)361-3165

고은 불교 대하소설



〈 45 〉

어떤 사연

수원과 수월은 이번의 뱃길에서 돌아온 뒤 한가지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다.

그들이 신도 임첨지의 소유인 천수만(淺水灣)의 작은 무인도인 간월도(看月島)에 배를 댄 것은 전혀 우연이었다. 밀물이 드는 때는 잘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 썰물의 개펄 위에 섬를 나타난 그 섬이야말로 두 사람을 긴장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그 섬의 한쪽에 갈숙이 작은 돛배 한 척 정도가 들어가는 물길이 남아있었다. 두 사람은 배를 댄 뒤 아주 조심스럽게 섬으로 올라갔다.

해송이 저희들끼리 서로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모여서 빽빽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바람받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바다 위 보다 한결 안온하였다. 마치 방금 누군가가 앉아있다가 떠난 자리처럼.

워낙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원점에 돌아올 정도의 작은 섬이기는 하나 어딘지 모르게 신령스러웠다. 해송을 흔고 가는 바람소리도 많은 흰백들이 때를 이루어 머물다가 달려가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었다.

수원이 더 긴장하였다.

"무슨 짐승이 나타날지도 몰라."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 수월은 무덤덤한 반응이었다. "이런 꼬마둥이 섬에 짐승은 무슨 짐승이겠어… 썰물 때 게들이나 개펄을 돌아다니는 것 말고는…"

"그만 떠나세."

"그러세."

두 사람이 발바닥을 땐 것처럼 걸음을 재촉해서 배에 탔다.

그들은 배의 한쪽이 개펄에 박힌 것을 삿대를 박아 빼어낸 뒤 배가 물에 떴을 때 분명히 섬 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어린 아이의 소리였다.

수원이 돌아다보았다. 소나무 그늘 속으로 어떤 자취가 숨어버리는 것이었다.

"사람인가?"

"귀신인가?"

"그도 저도 아니라면 문수보살이 아닌가? 문수동자(文殊童子) 말이네."



청상과부는 그가 낳은 아기를 큰 개천에 던져버리고…

이런 의문이 생겨났지만 그들이 탄 배는 더 이상의 해찰을 할 수 없으므로 돛폭을 활짝 펼쳐서 바람을 안았다.

이 서해는 거의 동풍이 없었다. 한 여름의 남풍을 제외하면 거의 중국 대륙에서 건너오는 관서풍이기 십상이다. 삼지어 겨울의 서북풍도 그것은 북풍이기보다 서풍이었다.

이런 바람을 받아 서산땅의 둔포에 다다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신도 임씨는 안면도 목재 일부를 목점 벌채해서 그것을 해상과 육로를 통해 경기 호남일대에 공급함으로써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다. 본디 아전출신이라 그의 앞에서는 웃는 인사를 하지만 그의 뒤에서는 '아전놈' '아전놈'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퇴물이었는데 늙은 마당에 이재(理財)의 수완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반면 다 자란 자식 두 놈이 잇달아 급사하는 참변을 당하였다.

"저승 장사라 귀신이 물어서 그렇지"라는 소리도 들어야 하였다.

그는 부인의 말을 들었다. "절에 시주를 할 일입니다"

두 아들을 졸지에 잃은 어머니로서 그녀는 이미 제 정신이 아니게 실성(失性)의 형백이 역력하였다. 그녀는 혼자 염불을 하기도 하고 타령을 부르기도 하였다. 때도 거르기 일쑤였다.

"밥? 나더러 사자밥을 먹으란 말인가?"

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밥을 먹게하려는 식구들을 몰리치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임첨지가 부자가 된 뒤 얻어온 기녀 출신의 아름다운 소실댁이 달려와 지극한 간호를 하는 것에 함입어 조금씩 실성기운에도 차도(差度)가 생겨났던 것이다.

남편은 두 사람의 여인이 서로 의가 좋은 것만이 대견하였다. 시앗을 본 본부인도 소실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소실도 정실을 깎듯이 섬기고 있었다.

한해를 넘기고 나자 이번에는 임씨가 두 아들을 잃은 비탄이 깊어져서 부인 대신 염불을 흉내내거나 타령을 중얼거렸다.

그런 뒤 그는 무욕도에 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푸짐한 시물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임천지 일가의 누구도 아직 무욕도에 건너간 적이 없었다. 오직 집안에 의탁하고 있는 마돌이 상노(常奴)가 충성스러운 노복 노릇을 하던 중 그들이 바리를 지고 뱃길까지 도모한 것이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죽은 뒤 4백14일이 되는 날 한 마을의 가난한 오막살이 청상과부가 딸을 낳았다.

"이런 변이 있나! 과붓년이 아이를 낳다니! 그래 마을 여관네들은 그년이 아이 밴 줄도 몰랐던가!"

"그년이 몇달동안 집을 나가 타처를 떠돌다 밤중에 돌아왔다지 뭔가."

마을 남정네들이 이 부정탄 사건에 대해서 한두마디씩 보태는 중에 마을 아낙 한 사람이 그 오막살이로 찾아가 아직 두 이레도 되지 않은 간난아기의 어미를 큰 소리로 저주하였다.

"이 더러운 년이 더러운 씨를 받아 우리 양반촌의 양속(良俗)을 더럽혔으니… 네 년과 네 새끼는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로다!"

이런 저주에 앞서 아기가 마치 서너살이나 먹은 것처럼 "엄마"라는 말과 달밤에 "달"이라는 말도 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산모는 그녀가 낳은 아기가 장차 큰 환란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어떨줄 모르는 미당인데 마을 부녀자들이 이따금 문 밖에 다가와 몇 마디씩 저주를 과붓는 것이었다.

과부는 아이를 밴 동안 밤에는 달빛이 그녀를 따라다니며 방안에서도 휘영청 밝은 달빛으로 환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배고 있는 아이가 장차 비범한 인물이 되리라는 사실을.

"아기장수가 내 배 안에 든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 8도의 어느 고을에도 아기장수의 설화가 퍼져 있다. 어린 아기의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자라나서 곧 하늘을 날게 될 즈음 임금이 보낸 장교에 의해 살살이 수색당한 나머지 등굴 속의 그 아기장수가 달아나기 직전에 잡혀 죽임을 당하고 만다는 설화가 그것이다.

어쨌거나 그녀는 아이밴 몸을 칠갑산 산골에 숨겨 지내다가 산월(産月)이 가까워지자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어서 돌아왔던 것이다.

그녀에게는 어떤 계시가 있었다. 꿈 속에서 그녀의 몸에 씨를 넣어준 백발의 노인이었다.

"이 골짜기는 짐승이 나고 죽는 곳이니 어서 마을로 돌아갈지어다. 그대가 살던 마을로."

이 한 마디 말이 햇소리처럼 들리고는 꿈 속의 노인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제 마을에서는 과부가 아이를 낳은 일 때문에 흡사 난리라도 난 것처럼 그 백년동안이나 잠든 것 같은 마을의 여기 저기서 사람들의 저주가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산모는 그녀가 낳은 아기를 마을 앞의 제법 큰 개천에 던져버리고 돌아서버렸다. "엄마!"라는 소리가 "풍덩!" 하고 물 속에 던져지는 소리 직후에 들렸으나 그녀는 뒤를 돌아다 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오냐, 나도 곧 네 뒤를 따라갈테다."라는 피어린 맹세만 하는 것이었다. 그녀로서는 백발노인을 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아기를 죽인 그녀 자신이야말로 다시 한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깊이 자책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아기를 물에 던진 사흘 뒤에 제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는채 머리를 푼 귀신처럼 그 물가에 가보았다.

"아뿔사! 우리 아기!"

아기가 던져진 곳에서 저만큼 물굽이가 감도는 곳에 걸려 물가의 돌밭에 있는 것이었다. 살아있었다. 들짐승이 후닥딱 달아났다.

그녀의 되살아난 정신으로 그 들짐승이 이제까지 아기를 보살핀 것임을 알았다. 들개인지 여우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부여 안았다. 아픈 젖은 마구 욱신거릴 뿐 젖을 내지 못한 채 막혀 있었다. 그녀는 막힌 젖을 마구 분질러댔다. 한참 뒤에 젖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아아 먹어라. 네 에미의 젖이란다."

아기는 "엄마"라고 말한 뒤 젖을 신나게 빨아댔다.

어미와 간난아기 딸의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바로 이 기구한 모녀가 마을을 떠나서 서산장터를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을 때 임첨지 일행의 눈에 띈 것이었다.

"저 거지년을 데려가자."

이렇게 해서 어미와 간난아기는 갑자기 벼락부자네 밥채에서 살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자네는 알 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고?"

이 첫 심문에 그녀는 대답을 거부하고 있었다.

"밝히지 않아도 좋아… 다만 아이를 찾으러 오지는 않겠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길로 모녀는 임첨지네 식구가 되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어미는 첨지의 셋째 마누라가 되어버렸고 아기에게도 의붓아버지가 생겨난 것이다.

과연 임첨지는 본부인이나 소실을 찾는 일이 전혀 없었다.

오로지 이 근본 없는 셋째마누라의 방에서만 밤을 보내는 것이었다.

첨지는 환갑을 넘기고도 정정하였다. 셋째마누라는 그녀의 거지행색을 벗어나자 빛무리가 서린 미모로 빛나는 몸이 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때 늦은 금슬도 드문 일이거니와 자라는 어린 딸이 더 놀라운 대상이었다.

"난리가 나! 난리가 나!"

라고 아이가 말하며 끙끙 앓았다.

"무슨 난리가 난단 말이냐?"

"난리가 나!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섬이 가라앉고 물기둥이 솟아올라."

바로 이런 소리를 서슴치 않고 내뱉는 아이의 소문이 무욕도까지 전해진 것이다. 우녀가 이 소문에 가장 깊은 관심을 보였다.

"내가 건너갔다 올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그녀가 인담에게 말하였다. 인담도 마치 5조 홍인의 설화와 비슷하게 된 그 소문을 기이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림 · 조향숙

"난리가 나!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섬이 가라앉고 물기둥이 솟아올라" 바로 이런 소리를 서슴치 않고 내뱉는 아이의 소문이 무욕도까지 전해지자 우녀가 이 소문에 가장 깊은 관심을 보였다

8년 성상 "부처님 만나러 가는 길"

실크로드 여행사

창립 8주년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삼보에 귀의하옵고
1987년에 설립한 저희 실크로드 여행사도 어느덧 8년의 세월을 더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임직원 모두는 향하는 곳마다 '부처님 만나러 가는 길'이 되게 하려는 자세로 사부대중을 섬겨 왔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과 신도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아오나 "부처님께 회향"하는 자세로 더욱 성실히 일하겠다는 원으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작으나마 창립 8주년을 기념하는 96년도 불교달력을 보급하고자 하오니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95 가을 불교성지순례일정을 간략하게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입장이는 마음으로
(주)실크로드여행사
대표이사 이 상 원 합장

중국불교 4대 명산 중 2대 명산을 순례할 수 있는 기회

중국 성지순례 12일

10월 25일 출발 ₩ 1,380,000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천하제일 명산인 황산 등

서울→상해→소주→남경→구화산→황산→항주→천태산 국청사→영파→보타산→상해→서울

인도, 미얀마,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성지순례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0-9600

불교간판의 대명사

절, 찾기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귀의삼보하옵고
그동안 성원하여주신 사부대중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찰 이정표 제작 시공 이후 전국의 1,000여 사찰이 저희 가람제품을 애용하시어 이젠 명실공히 통일된 사찰 이정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사찰 이정표 제품 선정에 망설이시는 스님들께서는 지금 전화 주십시오. 통일된 사찰 이정표는 최고의 품질과 현대감각의 디자인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사찰을 찾는 이의 사랑을 듬뿍 받는 가운데 말 없는 포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값진 일꾼입니다.

• 시공, 설치까지 완벽하게 하여드립니다.
• 전화문의 주시면 즉시 달려가 상담하여 드립니다.
• 본 제품은 1년간 무료A/S를 하여 드립니다.

가람기획
전화 : (02)720-5121, 720-2874
팩스 : (02)732-3769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B/D 201호
대표 이 주 영 합장

청각장애인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

"손짓 언어로 자비 전한다"



보살·윤회등 39가지 불교수화 발표

수화연구위원회 발족 '내용 보강'

"왼손을 펴 바닥을 향하게 만든후 오른손을 펴 왼손바닥을 쓰다듬고, 왼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한 후 오른손 바닥으로 왼손등을 쓰다듬으며 내리면 이것은 자비(慈悲)라는 뜻입니다" 덕신스님의 설명과 함께 연단에서는 해성스님이 시범을 보이자 청각장애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 따라한다.

"으음.....!"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어루만지듯 중생과 기쁨을 함께 한다는 것을 연상하여 만든 이 '자비' 불교수화는 손가락 하나 하나가 중생을 나타낸다. 부처님이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신에게 끌어당겨 고통을 소멸시켜 준다는 뜻이다.

지난 23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1백여명의 청각장애인과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불교수화발표회' 는 자비, 보살, 윤회등 39가지의 불교수화를 발표, 청각장애인들을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뜻깊은 첫작업이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자비는 눈물과 사랑이라는 의미로 청각장애인들에게 인식돼 왔다. 그러던 것이 원심회(회장 덕신스님)와 연화복지학원(원장 해성스님)의 오랜 연구와 노력의 결과로 진정한 자비의 참뜻을 청각장애인 불자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화는 청각장애인들의 유일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교계는 공인된 불교수화가 없어 불교포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불교, 절, 스님 3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타종교 수화가 대부분이었던 현실에서 이날 열린 발표회는 39가지의 불교수화를 정리하고, 불교수화용어집을 배포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발표회에서는 원심회와 연화복지학원을 중심으로 불교수화의 활성화를 위한 '불교수화연구위원회' 를 발족하고 석주스님을 고문에 추대, 불교수화 연구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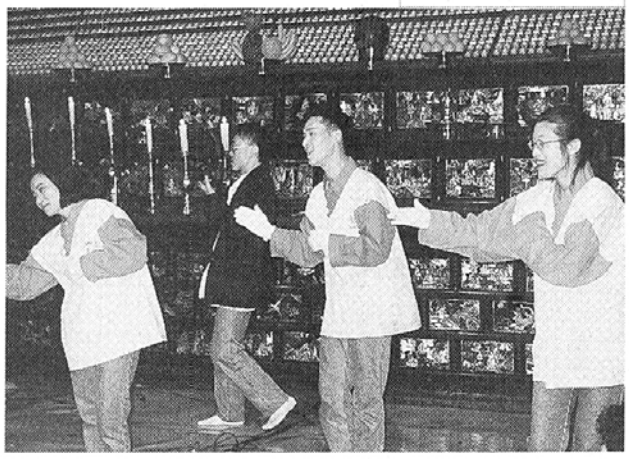
"현재 보완중인 나머지 40가지의 수화도 불교수화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기영박사와 법산스님의 도움을 받아 불교적 교리에 맞게 만들어나갈 계획이다"라고 원심회의 덕신스님은 밝혔다.

연화복지학원의 해성스님도 "불교수화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불교수화책을 일반도서관과 수화통이리, 농아학교,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에 널리 보급해야 한다" 면서 "불교수화는 청각장애인불자 뿐만 아니라 일반 청각장애인들에게까지 불교를 이해시키는 큰 역할을 하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불교계에는 원심회와 연화복지학원, 부산에서 개인적으로 불교수화강의를 하고 있는 강주수보살등이 청각장애인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청각장애인을 위한 불교단체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불교수화세미나를 기점으로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불교포교에 더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참석한 불자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이은자 기자



◇ 원심회와 연화복지회등은 각종행사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노래공연등을 펼쳐왔다. 〈사진 위는 불교수화 '자비' 의 시연 그림〉

신장 기증 '새 삶' 기쁨 나눠

생명공양실천본부 이식 수술 2건 '성공'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명공양으로 실천하고자하는 불자들의 신장기증으로 두사람의 불자가 새생명을 얻게돼 화제다.

생명공양실천본부(본부장 법장스님)는 지난 11일 강원 필불자(남 41세)가 이상준씨(남 16세)에게, 지난 12일에는 유동성불자(남 26세)가 고순원불자(여46세)에게 신장을 기증해 신장이식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강원필, 유동성불자는 "신장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저의 신장을 기증해 삶을 나눠가질 수 있는 행운을 가지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 이라며 생명공양의 기쁨을 밝혔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 폭력의 장 *
좋은 말은
채찍을 받지
않듯이



이 향 원



에리후 건강칼럼 <35>

홍수후유증

콜레라 극성 '위생 철저'…"끓이고 익혀 먹자"

지난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있었다. 이런 피해로 말하면 북한지역은 훨씬 그 정도가 심해서 유엔기구에 원조의 손을 뻗치고 있으니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이다. 홍수의 피해는 그 홍수가 할퀴고간 피해도 크려니와 홍수가 지나가고 난 연휴의 후유증이 더 심각한 경우가 많다.

그 한 예로 전염병의 창궐을 들 수가 있다. 보도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콜레라가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콜레라는 예견하지 못했던 전염병은 아니다. 동남아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지역에서 홍수의 뒷끝으로 콜레라가 극심하게 번지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도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던 점으로 예기된 발생이라고 하겠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이 입을 통해 전염된다.

소위 수인성질환이라고 해서 물이나 음식 기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것에 묻어 들어가는 균이 바로 콜레라균이다. 마하승지율이라는 불경에 물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만약 신자댁에서 비구에게 음식을 공양할 때는 '물을 걸렀습니까?' 하고 물어 보아서 만약에 '아직 안걸렀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이 사람에게 가르쳐서 물을 걸르도록 해야한다" 즉 음료수는 반드시 걸러서(정수)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당시의 인도사정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상당히 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친 흔적이다.



물을 여과하여 먹으라는 말은 물속에 섞여 있을 불순물이나 식수로 적합하지 못한 여러가지 물질을 걸러서 정수한 연후에 마시라는 뜻이다.

이런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꼭 들어 맞는 가르침이다. 콜레라균은 입을 통해 들어가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선 물과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

물을 걸러서 마신다는 것은 물속의 식수부적합물질을 걸러내는 효과는 있지만 콜레라 박테리아를 걸르는 물리적인 장치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걸른 연후에 한번 끓여 마시도록 하면 완벽할 것이다. 이런 이치로 모든 음식을 끓인 연후에 먹는다면 아무리 콜레라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전염은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콜레라의 확산 속도가 빠른 이유는 음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 음식은 입을 통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 꼭 걸러서 마시고 꼭 끓여서 마시고 먹으면 콜레라 균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
	•광고국 02-737-0692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전화 051-634-5114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전화 062-375-9986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전화 053-427-8008	
경기지사	•전화 032-613-4027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전화 0416-856-3280	

월간 대중불교 9월호



정법의 눈
쇠북소리 미움의 정치 / 정경희
특집 20주기 추모특집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삶과 원력/이용림
특집기획 우리 속의 왜색문화
'우리' 만화를 위한 변호 / 정준영
화투 속에 담긴 부끄러운 역사 / 박영하
개발의 빈곤과 수입의 과잉 / 김남석
함께 이루는 청정국토
생명의 모태, 바다가 죽는다 / 성낙진
오늘의 눈으로 읽는 전통문화
얼과 문화 경주남산의 감실 부처/김호형·김성철
페시지를 찾아서
강화 봉은사지 / 김상영·최태선
불교와 민속 불교와 꼭두각시놀이/김종대
전통과 오늘 사이
함께 사는 사회의 불가명절/서동석
오늘 여기에서 말씀대로 살기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건축사학자 신영훈 씨 / 김희균
수행으로 가는 길(6)/삼성각
바른 기도와 발원 / 이제열
생활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8)
대승의 꽃, 보시 바라밀 / 용타
교리산책/업(9) 정업과 부정업 / 정승석
에세이 보살불교(9)/지장보살(2)
지옥은 실존이다 / 일지
나의 수행담
물러설 수 없는 깨침의 세계로 / 대원성
스님께 듣습니다
염불하는 마음이 곧 극락이지요/태원·김희균
일상을 깨우는 산문들
수행길의 이런 도반
푸른 대쪽 같은 청화 스님 / 효림
큰스님의 그늘
양 다리 밑에 하늘이 있고/정복주
포교당 일기 부처님의 다이어트 법 /원욱
한조각 깨달음이 있는 수필
정복주·이시운·장춘석
해외 불교 읽기
환생의 나라, 티벳(3) 영성과 비극의 나라/김선정
모스크바의 원불교 한글학교
버려진 땅에서 일어선 고려인을 위하여/김희균
붕주우르, 길상 토요 전각교실 / 지묵
떨어나가는 불교
포교의 현장 불교생활문화 터전 닦는 노원구
법륜왕사 / 오경숙
신행단체 대한불교청년회 경남지구 산해원지부 / 황응수

정기구독신청은 (02)773-5731, 754-1614

"부처님 닮은 삶으로 안내"

불교진흥원 20년 기념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 발간

어떻게 해야 부처님답게 사는 것일까. 모든 불자들의 고민거리 가운데 그 중심에 자리잡은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해답은 간단하지 않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고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이렇게 하셨구나'가 해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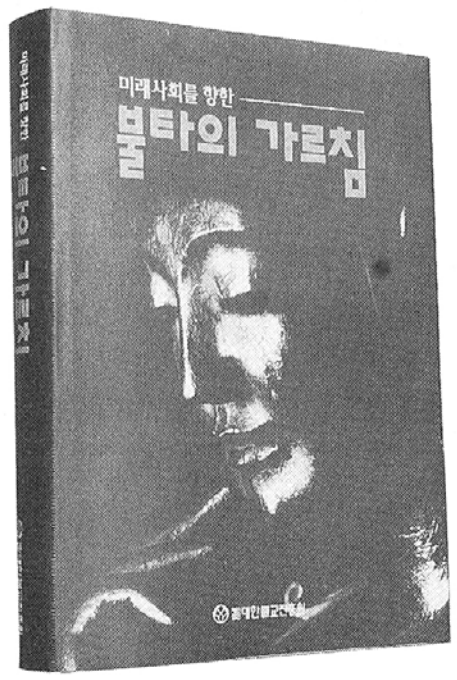
대한불교진흥원이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사회적 제현상을 불교적 시각에서 분석,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한 불자들의 생활지침서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을 펴냈다. 어떻게하면 부처님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며 해답이다.

모두 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제1장 '불교란 무엇인가'에서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고, 제3장 '불교의 신행'에서는 불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올바른 신행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제2장 '불교와 현대사회'이다. 가장 교육 과학 정보통신 등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매일 마주치는 문제와 변화하는 미래사회는 어떤 모습일 것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14개의 주제로 설정, 각 주제에 대한 불교적 견해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편찬동기는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구체적 문제들에 대한 불교적 처방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밝혀낸다'는 것으로, 지난 92년 개최된 대중불교결사 제4차 전국대회에서 '당면한 현실과 경전의 가르침 사이의 시대적 거리를 메꾸어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에 따라 우리시대의 '불교결집'이 제안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생한 삶의 지침으로 살려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소산이었다.

이 작업을 위해 편찬위원회(위원장 이기영)를 구성하여 이 책의 구체적인 규모와 윤곽을 정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각 부문 편찬위원에는 강건기교수(전북대) 권기종교수(동국대) 정병조교수(동국대) 등이 참여했으며, 다시 편찬위원이 책임집필위원이 되어 각각 맡은 분야별로 별도의 집필위원을 선정했다. 이에따라 각 분야별로 고준환교수(경기대) 김용표(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방귀희(작가) 연기영교수(동국대)등 35명이 집필에 참여했다.



바른 신행·사회 문제 불교적 해답 제시

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참다운 불자로서의 사명은 진정한 대승불교의 구현을 통해 현사회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며 "불자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펴냈다"고 밝혔다.

또 이기영 편찬위원장은 "부처님은 생생한 삶의 현장을 중요시하였고 그의 가르침은 항상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불로 피어났다"며 불교를 오늘의 시대를 이끄는 가르침으로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내용 요약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불교적 견해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불교와 현대사회'에서 설정한 14개의 주제는 불교인은 물론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모든이들의 공통된 고민이며 풀어야 할 화두이기도 하다.

가정, 교육, 환경과 생명, 미래의 불가, 노동, 일상생활, 사회윤리, 복지, 과학, 사회와 국가, 문화, 정보통신, 미래사회, 타종교에 대한 주제 가운데 주요부분을 소개한다.

가정은 애정 결합만이 아닌 '큰 나' 찾아가는 진리공동체

가정

가정은 진리를 실천하고 각자의 인격을 도모하는 진리공동체, 즉 하나의 승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평등에 입각해 작은 나를 버리고 큰 나를 찾아가는 가정생활, 이것이 불교적인 가정생활을 완성하는 것이다.

결혼은 단순한 애정의 결합만이 아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의 동반자를 구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생을 살아가는 데는 환갑 고희 회혼례 등 중요한 매듭들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돌아보는 계기 △가족간의 화합과 단결을 재확인하고 △나눔의 장이 되어야 한다.

노동

노동은 삶을 지탱하는 가장 은혜로운 활동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건강하고 선한 노동에 종사하면 건전한 역사발전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불교는 공존의 윤리를 강조한다. 노사간의 갈등을 넘어 공존의 윤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노력이 요구된다.

경영주는 무탐(無貪)의 윤리를 견지해야 한다. 노동자의 주체성을 확보해주는 등의 정당한 노력을 기울인 뒤에 정당한 이익을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는 무진(無瞋)의 윤리를 간직해야 한다. 부당한 행위를 벌여놓고 단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에 대해서 분노한다면 그것이 버려야 할 분노이다.

노동자와 경영주는 함께 은(恩)의 윤리를 공유해야 한다. 상대가 있음으로 자신이 존재할 참된 방향과 그것을 수용해야 할 이 사회의 질적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정보사회가 필연적으로 겪게 될 초고속화, 대량화, 정보물신화의 물결이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불자들의 큰 관심사안이다.

불교는 정보화시대의 바른 철학과 윤리를 제공하는 희망의 보루이며 목표이다. 이는 괄정도의 실천으로 구현될 수 있다.

불교는 정보화의 참된 방향 선도하는 '윤리의 보루'

타종교에 대하여

현대는 상대주의의 시대이다. 상대화된 종교들은 절대신념체계와 절대가치관의 기능을 가졌던 전통사회에서의 종교와는 달리, 전체사회의 한 구성요인으로서 각각의 존립과 번영을 추구한다.

따라서 종교간의 갈등과 마찰이 불가피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는 종교들이 서로 갈등과 마찰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종교가 자신의 팽창의 지만 견지하게 되면 하나의 사회 이익집단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불교에서는 종교의 기능을 뗏목에 비유하고 있다. 불교는 진리에 대한 독단과 종교 자체의 절대화를 용납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종교간의 만남을 위하여 불교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본질적인 관용의 자세이다.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종교의 본질에 대한 통찰에 입각한 관용이다.

둘째, 언어와 논리의 겸손이다. 셋째, 종교간의 만남의 광장으로 우리는 말이 끊어진 자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자리는 소아적인 '나'가 빈자리이며 나와 남이 하나된(自他不二) 자리요, 사랑과 자비의 원천이다.

정보통신

오늘 우리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옮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일상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요소 중에 정보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점하게 되었으며, 이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불교는 정보화가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성운 기자

화제의 책

인도문화의 이해 이은구 지음



인도는 불교의 발상지이며, 세계4대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로 수천년의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나라이다. 또한 불타 간디 네루 타고르 등 위대한 인물이나 여타 많은 이유로 해서 우리에게는 상당히 매혹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인도문화의 이해〉는 인도의 역사 사회 문화 예술를 소개한 인도학 입문서. '인도의 민족과 언어' '인도 역대 왕조의 정치와 경제' '인도 사회와 카스트제도' '인도의 철학' 등 7장으로 구성했으며, '인도의 종교'에서는 인도에서 생겨난 모든 종교와 인도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이슬람교를 인도적 상황에서의 문화유입이라는 측면에서 살피고 있다.

불교 쇠퇴의 원인과 관련해 저자는 불교가 쇠퇴했다기보다는 인도사상의 큰 물줄기에 합류한 것이며, 불교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인도사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세창출판사, 1만2천원〉

문체부 추천도서 내달 17일까지 접수

문화체육부는 '제28회 문화체육부 추천도서'를 10월 17일까지 접수한다.

출판사의 양서출판 의식고취와 국민독서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되는 추천도서 선정분야는 총류 역사 종교·철학 문학 예술 사회과학 과학기술 아동·청소년 만화 번역등 10개 분야이며, 모두 1백종 내외를 추천도서로 선정한다.

선정대상 도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발행되어 문체부 납본을 필한 신간도서이다. 신청서교부 및 접수는 대한출판문화협회(735-2701)에서 하며, 추천도서로 선정된 도서는 문체부에서 일정량을 구입하여 전국 공공도서관과 해외문화원 등에 배포한다.

'보리도 차제광론' 한글판 대만독지가에 의해 보급

티벳불교 연구의 귀중한 문헌인 〈보리도차제광론〉(菩提道次第廣論)이 대만의 혜해불교문화기금회에 의해 한글로 번역 출판돼 우리나라에 보급된다.

〈보리도차제광론〉은 15세기 티벳불교를 체계화한 중카바스님의 저술로, 티벳에서는 라마승이 되기 위한 필수학문으로 〈진언도차제광본〉(眞言道次第廣論)과 함께 가장 뛰어난 저서로 꼽힌다. 중론 연구에도 필독의 문헌이다.보급문의는 진각종 홍교부(913-0751)와 민족사(732-2403).

포교사고시 예상문제 포교원, 불교대학등 배포

조계종포교원(원장 정락)에서는 〈포교사고시 예상문제집〉을 발행, 배포하고 있다. 오는 10월실시 예정인 포교사고시에 맞춰 발행한 이 책에는 '부처님의 생애' '불교의 근본교리' '한국불교사' 등 10장으로 구성, 모두 819문항을 수록했다.

부록으로는 조계종종헌과 포교법 사찰 운영위원회법 신도법을 실었으며, 전국 34개 불교대학에서 배포한다.

'진흥원 20년사' 발간

대한불교 진흥원은 〈진흥원 20년사〉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75년 진흥원 설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립 및 발전' '사업현황' '전망과 과제'로 나눠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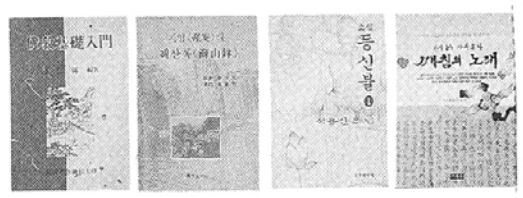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역자	출 판 사
1	달마의 제자들	고 우 영	불 지 사
2	삶에서 깨어나기	틱 낙 한	장 경 각
3	한글아함경	고 익 진	동국대출판부
4	소설 선	고 은	창작과 비평사
5	기독교와 선	라즈니쉬	정신문화사
6	영가 천혼법어	석 성 우	토 방
7	무엇하러들 오셨는가	돈 연	미 학 사
8	인식론·논리학	사이구사 마쓰요시	불교시대사
9	절로가는 마음	신 영 훈	책만드는 집
10	정통선의 향훈	청 화	을지출판공사

구입문의:(02)737-0695

새로나온 책



▲불교기초입문(장인석 지음)=불교는 철저히 인간을 중심으로 한 종교라는 입장에서 저술한 불교입문서. '불교란 무엇인가' '석존의 생애와 수행' '불교신도의 일반상식'등 12장으로 구성했다. 〈한국불교통신대학, 5천원〉

▲해산록(海山錄, 이동항 지음)=조선중기의 유학자이며 서예가인 이동항(1736~1804)의 금강산 기행문. 당시 금강산의 장안사 표훈사 유점사 마하연 오세암 등의 정경과 유물·유적에 대한 관람기가 실려 있다. 홍익대 국문과 최강현교수 번역. 〈국학자료원, 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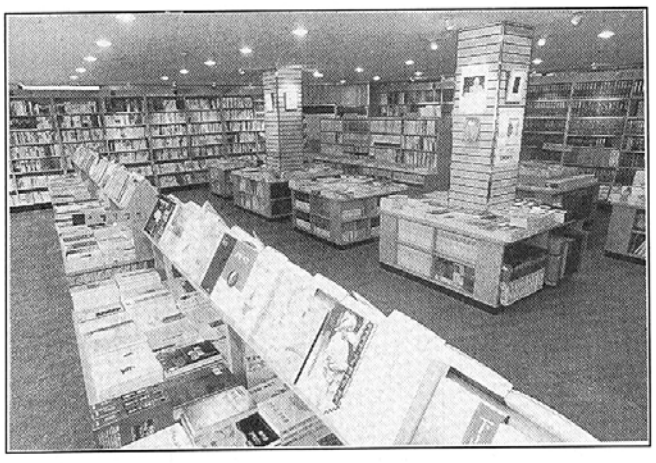
▲소설 등신불(석용산 지음)=수필집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로 널리 알려진 저자의 첫 장편소설. 신라왕자로 태어나 중국 구화산의 성자가 된 김교각스님의 구도적 생애를 소설로 재구성했다. 전 2권. 〈문학수첩, 각 6천원〉

▲깨침의 노래(권성구 편저)=원효 자장 혜능 임제 등 한국과 중국 역대 고승들이 남긴 오도송과 열반송 380여수를 한데 모았다. 각 게송마다 우리말 풀이와 짧막한 도움말을 달았다. 부록으로는 용성 경봉 인곡 탄허스님 등 근현대 우리나라 선승들의 대표적인 법어를 수록했다. 〈사람들, 9천5백원〉

불을가득, 법향가득

책방 여시아문

길 찾는 이의 도반, 책방 여시아문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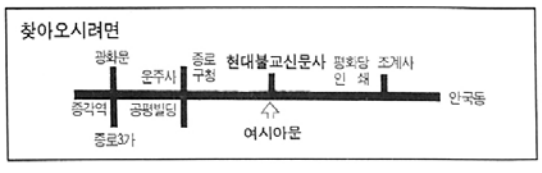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책**—각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애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본 책방에서 양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아 신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자세히 보기**—독자 여러분께 보탬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려면



전승공예대전

불교소재작품 다수 입상

문체부장관상 '목각수월관음도목판' 특별상 '천부도' 등

제20회 전승공예대전(전통공예문화상품공모전)에서 불교소재 작품이 다수 입상됐다.

지난 15일 수상자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승공예대전에서는 조정훈씨가 '목각 수월관음도목판'〈사진〉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특별상에 '천불도'의 이영란, 장려상에 '관세음보살 보문품도'의 고영을, 입선에 '반야심경'의 김영규 '수월관음도인출본'의 조정훈 '연화도문갑'의 배금룡 '자수 관세음보살상'의 곽노월 '사천왕상' '보살도'의 조석인씨가 수상했다.

문화체육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9개 전승공예분야에 일반공예가 2백74명이 총 3백91점이 출품됐다.

이번 행사의 수상작은 학계 및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심사한 것으로, 조정훈씨의 '목각 수월관음도목판'에 대해 "관목에 양각으로 조각한 작품으로 조각수법이 정밀하고 대칭구조의 조화미를 갖추고 있어 목판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20회 전승공예대전은 예년과는 달리 한국적인 문화상품을 개발, 발전시켜 세계화 하는 계기로 삼고자 전통공예문화상품 공모전과 동시에 개최됐다. 이는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는 공예에 창작성을 가미, 현대생활에 접목해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상품화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전승공예대전의 입상·입선작 전시는 오는 10월18일부터



11월27일까지 경북궁내 한국전통공예미술관에서 일반인에게 공개 전시된다.

도필선 기자

인터뷰 문체부장관상 조정훈씨

"목판 인식전환 계기 됐으면"

"불모지에 가까운 목각을 하느라 외롭고 힘들었던 고난의 세월을 잠시나마 잊게해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20회 전승공예대전에서 '목각 수월관음도목판'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조정훈씨(39).

조씨에게 있어서 이번 수상은 단순한 수상의 기쁨보다 이를 계기로 목판에 대한 인식전환은 물론 대중화에 일조해 불교기록문화를 비롯한 불교예술분야에 새로운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원이 담겨져 있다.

그동안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복원·재현, 금강경탑 재현, 대동여지도 복원 하는 등 전통을 계승하면서 불교의 현대화에 앞장서 왔던 조씨는 "서각은 그나마 보편화돼 있는 편이지만 목각은 그렇지 못하죠. 그야말로 홀로 터득하고 개발해 내야 하는 척박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 한사람 알아주는 이 없이 13년동안 목각을 해온 조씨는 목각하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산다. 한각한각 정성으로 완성해낸 이번 '목각 수월관음도목판'은 꼬박 4개월이 걸렸다. 4개월 동안 그는 한순간도 작품에서 떠나 본적이 없다. 장인인생을 살아온 그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관음보살과 하나가 되고자 했던 것이다.

"화엄80변상도, 부모은중경, 심우도, 석가팔상도, 관음보살 32현 등도 목각할 계획입니다."

〈필〉



◇신영조씨



◇신동호씨



◇김성길씨

심장병 어린이 돕기 '佛音잔치'

불교사회봉사회 자선음악회 오는 30일 호암아트홀

불교사회봉사회(법주 중원스님)가 주최하는 제4회 심장병 및 백혈병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가 오는 30일 오후7시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날 음악회에는 불교방송합창단(지휘 김동환) 청룡마야합창단(지휘 정옥녀)과 정은숙, 양은희, 강태복, 김현숙, 김신자, 신영조, 신동호, 최조웅, 김성길, 성기훈씨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가 대거 참여한다. 이번 무대에서 공연될 곡목은 '반야심경' '비구니' '장안사' 등 불교가곡과 '한오백년'등 민요, '보리밭' '산고을'등 가곡과 오페라곡등 다양하다.

이번 음악회에서 모금된 후원금은 박광현(2세)군등 심장병·백혈병 어린이들의 수술비로 쓰여진다. 어린이 1인당 수술비는 2백~3백만원이 필요하다 .

"그간 이 자선음악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에 힘입어 올해도 보다 더 알뜰한 무대를 만들었다"는 중원스님은 "불교계에서 이같이 내실있는 음악회도 흔치 않은 만큼 많은 불자님들의 성원을 기다린다"고 당부했다.

불교사회봉사회의 자선음악회에는 강태복, 김현숙, 김신자, 신영조, 김성길, 성기훈씨 등이 매년 동참하고 있다.

국내 정상급 성악가 대거 출연
불교방송·청룡 마야합창단 공연



◇양은희씨



◇김신자씨



◇정은숙씨

조각으로 보는 '불화속 불보살'

이진형씨 첫 개인전… 내달 4~10일 공평아트센터

30여년간 전통불교조각에 몰두해 온 이진형씨(문화재 조각수리기능인 680호)가 첫 개인전을 갖는다. 10월4일부터 10일까지 공평아트센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이씨가 3년동안 준비해 온 30여작이 선보인다. 작품은 30종이나 전시될 조각 작품의 수는 1백점이 넘는다. '부처님과 33조사' '18나한상'등 한 작품에 동원된 조각품들의 수가 많기 때문.

이씨의 전시회가 갖는 특징은 매우 정적인 이미지의 '관음상'등 전통조각품과 '나한상' '조사상' '여래상'등 동적인 이미지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는 것.

특히 이씨는 탱화속의 여래와 33조사들을 입체적으로 빚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작품의 소재는 괴목, 은행나무, 느티나무, 청동 등이며 크기는 25㎝의 소품에서 2미터가 넘는 대작까지 다양하다.

"불교조각을 신앙의 대상이란 측면에서 너무 경직되게 조각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존엄한 신앙성과 작가의 창작의지가 담긴 새로운 조형적 이해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3년간의 준비끝에 마련된 이 전시회를 이씨는 "내게 있어 새로운 조각세계로 다가서는 하나의 관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찬수(조각) 김의식(회화)씨에 이어 전통불교미술인으로서는 3번째로 개인전을 갖는 이씨는 불미전에서 다수 수상했으며 현재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다.

백련장학회 기금마련
서화 1백여점 전시

백련장학회(회장 송춘희) 기금마련 서화전이 지난 23일부터 대구 기아산업 전시실(MBC앞)에서 열리고 있다.

창립이래 줄곧 불우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백련장학회 주최, 이번 서화전에는 월하, 석주, 원담, 숭산, 서경보스님의 서예작품과 삼전스님, 혁재선생, 아천선생, 대만 심인선생의 작품 1백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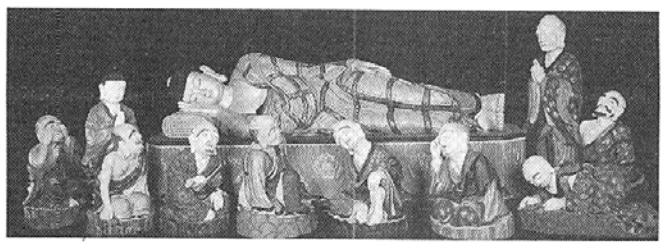
'불화 그리기' 강좌
조계사·한겨레문화센터

불화그리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조계사 문화강좌와 한겨레문화센터에 불화그리기 강좌가 개설됐다.

불화의 이론과 실기를 중심으로하는 조계사 문화강좌의 불화그리기는 10월2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2시에 열린다(720-1390).

지도는 불미전 종정상과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의식씨가 맡는다.

한겨레문화센터의 우리붓그림 강좌는 그림마을 흙손 대표인 김봉준씨가 지도하며 불화, 민화, 풍속화를 함께 다룬다. 지난 14일부터 문을 열었으나 신규회원을 계속 모집한다(3272-7575).



◇이진형씨의 '열반상'. 은행나무를 소재로 부처님 열반 때의 상황을 묘사했다.

불심시심 〈32〉

가고 쉬지 않는 물

一波寒源清且幽 (일파한원청차유) — 한 줄기 싸늘한 물 맑고도 깊숙해

環山橫野等閑流 (환산횡야등한류) — 산 돌고 들 뚫어 한가로이 흐르네

涓涓自得朝宗勢 (연연자득조종세) — 졸령졸령 스스로 가야할 곳 알아

從古于今逝不休 (종고우금서불휴) — 예로부터 지금까지 가고 멈춤 모르다

이 시는 보응당 영허(普應堂 映虛 1541~1609)대사의 시이다. 대사의 문집으로 영허집이 전해지고 있고 둔집에 54편의 시가 전하고 있으니 양으로는 많은 분량이 아니지만 시의 주조가 속기를 여읜 그야말로 망기(忘機)의 정취로 일관되어 있다.

윗 시도 그러한 정취가 넘쳐나는 시라 하겠다. 제목은 흐르는 물이라 했으나 물을 읊었다 하기보다도 자신의 걸음을 읊었다 해도 무방하겠다. 언제나 변함이 없는 자신을 물에다 기탁했다해도 지나침이 없다. 막힌 산이면 둘러가고 뚫린 들이면 바로 질러가는 것이 물의 속성이다. 어느 곳으로 흐르더라도 궁극에는 바다를 조종으로 삼는 것이 또한 물의 속성이다. 그러한 물의 흐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스님들의 모습 또한 이러한 물의 흐름과 유사함이 아닌가. 속세이든 세상 밖이든 어디에도 막힘이나 집착이 없이 피안이라는 진리의 세계, 해탈의 세계가 궁극의 바다이다. 시간이나 공간이 아무리 변해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다. 이 시는 이러한 진리의 세계를 물에 비유하여 읊은 선기적 시라 하겠다. 어찌보면 진리의 추구가 아니라 방기해 버리는 소극적 자세 같지만,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바로 여여한 진여의 실상이요 이 실상의 깨달음이 선수행의 목적이라면 이렇듯 시공을 초월한 흐름의 방임이 방임 같으면서도 방임이 아닌 실체의 참다운 증득이다.

이것이 이 시에서 스스로 터득한 바다로의 조종의 자세이다. 물의 흐름이 처음부터 바다로의 지향으로 의지를 삼은 것이 아니로되 끝내는 바다로 조종을 삼게 되는 이것이 바로 진리이다.

대사의 삶이 이러한 물 흐름과 같은 자세이기에 어디에도 집착이 없는 초연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망아의 경지를 넘어 망기의 경지로 드는 것이 아닌가.

이종찬 〈동국대 교수〉

문화재 단신

통일신라때 당간지주
청도 장연사지서 발견

경북 청도군 장연리 장연사지(長淵寺址)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당간지주(幢竿支柱)가 최근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당간지주는 부러진 돌기둥으로 아랫부분은 보물 제677호로 지정된 장연사지 3층석탑 남쪽 10m지점에서, 부러져 나간 윗부분은 장연리의 재실(齋室)인 구연정에서 각각 발견됐다.

현재 도문화재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한 청도군은 "장연사지 3층석탑이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됐고 특이한 조각등이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 환수추진위 구성
원주문화원, 서명운동 전개

원주문화원(원장 박형진)은 이달중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국보 제101호 지광국사현묘탑등 원주지역 불교문화재 7점을 되찾아 오기 위해 지역 문화재전문가 시·도의원 향토사학자 각계인사 등 80여명으로 문화재환수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추진위(위원장 박형진)는 이달중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다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치악문화제 기간에 문화재 환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등 지역문화재를 되찾아오기 위한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일제 식민지정책에 의해 수탈돼 경복궁으로 강제 이전된 후 현재 중앙박물관 경내에 보관돼 있는 원주지역 불교문화재는 지광국사현묘탑등 국보 2점과 보물 제190호 거돈사 원공국사 승묘탑등 보물 5점이다.

수리기술 기능자격시험

문화재관리국은 95년도 제2회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자격시험을 오는 10월16일 실시한다.

(문의전화 318-7455).

그동안 자격시험은 매년 1회씩 시행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는 3백93명(보수등 5개 종목), 문화재수리기능자는 1천3백32명(목공등 15개 종목)의 자격자를 배출했다.

• 역대 고승들의 오도송과 열반송 및 법문 모음집 •

깨침의 노래

한권의 책으로 수많은 고승들과 만난다!!

◘ 총 380여수의 「깨침의 노래」국내 최초 출간!!
한국과 중국을 통틀어 역대 고승들의 오도송과 열반송, 법문을 총망라한 「깨침의 노래」 불교계 최초 출간!!

◘ 개인·단체·학교·사찰 단위로 단체 주문 쇄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후 읊은 큰스님들의 오도송과 열반송, 큰스님들의 행장을 말해주는 법문 등을 편저자 권성구님이 전국 사찰을 수십년간 순례하여 모은 380여수의 주옥같은 노래!!

◘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읽어야 할 책!!
「깨침의 노래」는 스님과 불자들에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며, 각종 공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씻겨주는 청량제!!



신국판/450쪽/값9,500원

◎ 연속 재판!! 절찬리 판매중!!
10부 이상 법보시를 원하시는 스님·불자·일반인들은 도서출판 사람들로 연락을 주십시오. 정가의 10%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95 불교 출판계 스테디셀러!!
역대 고승들의 오도송·열반송·법문등을 소장하고 있는 스님과 불자들은 도서출판 사람들로 연락을 주십시오. 개정 보증판에 수록하겠습니다.

도서출판 사람들
전화 : (02) 725-6922~4
팩스 : (02) 725-6920

불사건립 안내

본인은 95. 8. 13 "포교원"을 개원 활동중이며 95년 10월 중 조그만 불사를 건립키 위해 추진중이오니 뜻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과 동참을 비옵니다.

1. 불사건립계획
• 입지확보 : 95. 9. 30
• 건립/준공 : 95. 10. 16~11. 30
• 낙성식/점안일정 : 95. 12. 3 (9. 11)
• 장소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2리 두류산 절골터
• 건립위원장 : 법장사 송월스님

2. 연락처
(02)467-4888 / (011)368-1497
(0363)441-6260(법장사) / (0363)441-3125

3. 동참금 입금방법

은 행	계 좌 번 호	예금주
주 택	446025-95-104785	조윤호
축 협	041-12-15300-316	조윤호
신탁(서울)	31007-0172900	조윤호

대한불교 칠성포교원
법사 조 윤 호 합장
(전화 : 02-497-5311)

금강경 강의 및 관법수행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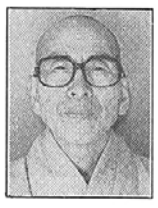
강의일시
10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매주 월요일 11시)

장 소
유마선원 법당

설법지도
이제열 법사
(유마선원장)

문의신청
597-9129, 582-0565

사람을 찾습니다



성명 : 이 만 용
나이 : 73세
특징 : 이마에 흉터

건망증이 심함
상기 분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람
후사함

연락처 : 051-255-1151

공장 부지 급매

위치 화성군 남양면 소재
평수 약 4천평 정도

연락처 0339-356-8383~5
011-278-0469

종립학교 포교 '제자리 걸음'

무종교 신입생 졸업때까지 '불교입문' 거의 안해
교법사 역할 강화…교학 수업 질향상 대책 절실

종립학교 운영현황 자료집서 밝혀

불교종립학교 신입생의 25-30%가 무종교 학생이며 이들의 비율이 졸업시에도 거의 변하지 않고 있어 종립학교 교학수업이 포교에 영향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 청담고교의 경우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종립학교에 다니면서 불교를 신앙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75%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불교종립학교 학생 가운데 불자 학생은 중학교가 37.6%, 고등학교가 24.7%이며, 전학년 교학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중학교의 경우 5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학수업에 대해 학생들은 중학교 43.7%, 고등학교 29.5%만이 유익하다고 답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지난 15일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설조스님)가 발간한 '종립학교 운영현황 자료집'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집에 따르면 연도별·학년별 종교활동현황에서 종립중·고의 신입생중 불자학생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가도 불교를 신행하는 학생수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자료집 발간 관계자들은 전체 종립학교가 안고 있는 교학수업의 한계성과 그에 따른 질적 저하, 그리고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교법사의 지위 및 역할 저하, 종단의 지원과 협력부족 등을 그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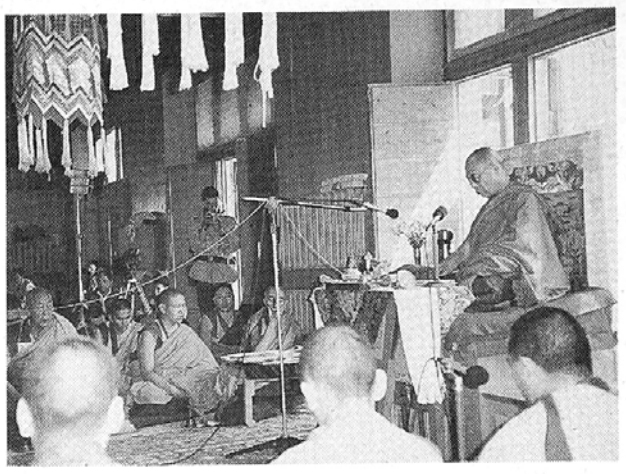
특히 현재 종립학교 교법사수는 모두29명(학교당 1.3명)에 불과한데다 이들이 맡고 있는 교학수업은 주평균 15시간, 이외 일반수업도 10시간에 달해 평교사보다 많은 수업을 맡고 있으며 수업외적인 포교활동을 감안하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불교계 종립학교는 9개 학교법인 산하에 대학2, 고교 11, 중학12, 국교1등 26개교. 반면에 개신교는 대학 및 신학대학 31개교를 포함 278개교에 이르고 있으며, 카톨릭도 9개 대학을 포함 모두 80여개의 종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 타종교의 종립학교가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연구와 계획하에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교계 종립학교의 불교교육은 새로운 지도방침과 운영좌표 설정이 시급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자료집은 21세기 동국발전 기본계획과 관련, 불교종합병원 건립 및 일산 자연과학 신캠퍼스 건설사업등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동국발전의 제2도약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달라이라마가 몽골 울란바토르 간단사에서 딴뜨라 최상의 수행법인 칼라차크라 법회를 주관하고 있다.

"술 적게 마시고 불행한 아이 돌보자"

달라이라마 몽골서 대전수식 봉행

티벳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지난달 31일부터 14일동안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간단사에서 칼라차크라 대전수식을 봉행했다.

달라이 라마는 대 전수식에 앞서 3일동안 외부 접촉을 끊고 간단사 데첸칼와 법당에서 새벽부터 몽골의 고승들과 준비의식을 집전하며 기도정진했다. 이어 5일간 몽골불자들을 대상으로 칼라차크라 법회를 실시했다.

달라이라마는 법회에서 "술을 적게마시고 버려지거나 불행한 아이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말하고 "티벳과 몽골은 불교형제국으로 서로 도와 부처님법을 펼치자"고 당부했다.

지구촌 불교

칼라차크라는 대규모 군중을 대상으로 법을 전하는 탄트라 최상의 수행법으로 이번 법회에는 몽골 전역과 러시아등의 소수민족 불자 수십만명이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고 법을 전수받았다.

달라이라마는 몽골 방문기간 동안 간단사 승가대학 25주년 및 정식대학 승격 기념행사에 참석, 승가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번 법회는 몽골에서 60여년만에 처음 열린 대규모 법회로 몽골 TV, 신문등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편 이번 달라이라마 칼라차크라 대전수식에는 티벳의 독립운동을 적극후원하고 있는 세계적 배우 리처드기어가 동참, 눈길을 끌었다.

美방문 티벳 독립 호소

달라이 라마는 지난 6일부터 10일간 미국을 방문하여 중국에 강제합병된 지 30주년이 되는 티베트의 독립문제를 국제화시키기 위한 각계접촉을 가졌다. 방문중 달라이 라마는 클린턴대통령 및 고어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미국민들과 언론이 티베트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백악관측은 "클린턴대통령은 티베트의 종교와 문화보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달라이 라마와의 현안해결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중국정부는 클린턴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면담한 것과 관련 "이는 내정간섭이자 중국분열활동에 대한 지지"라고 비난하고 미국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하고 있어 향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주목된다.

"언어·풍토 민족따라 불교 수용 달라"

'불교는 기후 풍토 민족 습관 언어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르게 수용되며 발전된다'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신간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춘추사'에서 나온 '불교 그 방향과 풍토'가 그것.

특히 이 책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불교가 교류함에 있어서 기후 풍토 민족 습관 언어 등이 서로 다른데서 생기는 모든 여건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불교가 전해지는 방향과 통로에 주목하고 있다.

또 이 책은 신라에서 중국 천축으로 통하는 길, 중국 선종사에 있어서의 남북문제, 육로와 해로를 통해 들어온 일본불교 비교 등 한국 중국 일본불교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삼국의 불교이해를 새롭게 하고 있다.

부처님 방송에 컴퓨터통신 '일조'

btn, BBS 'PC 참여코너' 시·청취율 높아

'컴퓨터 통신을 통해 사연을 보내고 노래를 신청하고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간다.'

요즘들어 부쩍 늘고있는 컴퓨터와 방송이 만나는 현장이다.

BBS는 '살며생각하며' '자비의 전화' '거룩한 만남' '퀴즈대장경' '언제나 푸른불교'가 btn은 '자비의 천수천안' 'TV신행상담'이 시·청취자와 프로그램 참여코너를 통해 만나고 있다.

'살며 생각하며'의 경우는 개설 2달만에 1백여건의 사연을 접수받는등 불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컴퓨터 통신을 통한 방송참여는 난시청지역의 불자와 컴퓨터를 이용한 젊은 불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일반 청취자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어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컴퓨터 통신은 방송 감시기능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달 25일 방송된 MBC-FM '김현철의 디스크쇼'를 통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진행자 김현철씨가 "경주는 신이 버려서 비가 안온다"고 말해 불자 통신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와관련 MBC는 '김현철의 디스크쇼' 담당 PD 배준씨를 지난 18일부터 교체했다.

컴퓨터 통신은 천리안 불교동호회를 중심으로 불자들의 참여가 급증하는 추세로 SBS가 컴퓨터 통신 생방송 프로를 방송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교계 일각에서는 컴퓨터 통신 전문 프로그램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BBS와 btn은 전체적으로 컴퓨터를 통한 방송참여가 타종합방송사에 비하여 미비한 상태지만 시청자와 청취자를 하나로 묶어주는 컴퓨터 통신참여는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포교방송형태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래종 만덕사 기공식이 지난 19일 봉행됐다.

여래종 총본산 만덕사 기공

19일 옥천서…대웅전·강원·납골당등 갖춰

여래종이 총본산 건립과 함께 종단 위상제고에 나섰다.

여래종(총무원장 김법우)은 지난 19일 오전11시 총본산 만덕사 기공식을 종정 석인왕스님, 각종단 스님등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봉행됐다.

종단의 숙원 사업인 총본산 만덕사는 충북 옥천군 동이면 산71번지 일대 약12만7천평의 대지에 대웅전을 비롯 강원, 복지시설, 납골당, 청동약사대불, 5여래 1'만3천불 등을 갖추게 된다.

총무원장 김법우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만덕사 건립은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의 장으로 거듭탄생할 것이며 세계불교 교류의 구심점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종도들이 한마음으로 총본산건립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총본산 만덕사 기공식에 이어 석인왕스님과 스리랑카 단마루카스님등 동남아스님 3명을 계사로 '제3회 세계고승초청 국제보살 수계대법회'도 거행했다.

창종 31년 기념법회

관음종, 19일 묘각사서

관음종(총무원장 이홍파)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총본산 묘각사 대웅전에서 태허대종사 탄신 91주년 및 창종 3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각종단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모든 종도들은 태허대종사의 뜻을 받들어 종단발전에 용맹전진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념법회후 전국 각 말사 주지회의를 개최, 오는 29일 개최되는 '생전예수재 및 수륙영산대법회'의 준비현황보고와 원만한 회향을 위해 논의했다.

'백양사의 전통다비'

시네아트 비디오 출시

시네아트는 지난 16일 다큐멘터리 '백양사의 전통다비'를 비디오로 출시했다.

만암대종사, 백양사, 다비장 3장으로 구성돼 있는 43분 분량의 이 비디오는 문화재적 유물·유적의 가치가 있는 백양사의 전통다비식을 담고 있다.

"세계종교협력기구 창설 제창"

원불교 이좌산 종법사 국내 첫 종교인 유엔 연설



◇이좌산 종법사

원불교 이좌산(右山)종법사가 국내종교인으로는 처음으로 유엔에서 연설했다. 좌산종법사는 유엔에 버금가는 강력한 세계 종교협력기구(UR) 창설을 제창하면서 세계 각 종교들이 앞장서 인류사회가 당면한 제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종법사의 유엔연설은 유엔비정부기구(NGO)회원종교NGO와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가 유엔창설 50주년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주최한 '유엔과 세계공동체의 건설'이란 강연회 형식으로 치뤄졌다.

지난 22일 오전10시 유엔센터 제4회의실에서 '세계공동체 건설을 위한 종교간의 협력'을 주제로 연설한 이좌산 종법사는 "이제 세계는 언어 피부색을 넘어 서로 부처님처럼 존중하고 돕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꾸어 나갈때 세계공동체 건설의 장애요인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오은(원불교유묵교당)교무는 지난 6월 동양인으로는 처음 유엔 비정부기구(NGO)의 하나인 종교위원회 제11대회장에 취임했다.

日정치인 민주사회속 종교부정 '파문'

일본 자민당의 가토우씨(加藤)가 지난 3일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종교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와 서로 양립될 수 없다"는 폭언을 해 각계각층에서 비난의 소리가 일고 있다.

가토우씨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 종교계는 단순히 종교에 대한 이해의 부족차원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법아래 평등'을 짓밟는 문제로 간주,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입교대학의 스즈끼교수는 "가토우씨의 이번 발언은 헌법에 정해진 종교의 자유를 역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는 정치가 종교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만 그의 발언은 종교가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토우씨의 발언문제는 29일 소집예정인 임시국회의 '종교법인법 개정안' 제출과 관련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수미 기자

3차 주식공모 결의

btn, 8차 이사회

불교텔레비전 제8차 이사회가 지난 15일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불교텔레비전 재원확보에 관한 안건이 상정돼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달간 제3차 불자 주식공모를 시행키로 했으며 일시 부족자금을 조달키위해 20여억원의 금융차입을 이용하는 방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불교방송 인사조치

불교방송은 직원들의 동향파악 보고서 과문과 관련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작성자인 총무부 안영수 차장을 영업국 사업부로, 총무국장 종훈스님을 방송위원으로 인사조치하고 기획부 차장 최창기씨를 총무부 차장으로 인사발령했다.

그러나 종훈스님은 "강한필 사장직무대행에게 인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명서

— 해인골프장 건설 강행하려는 (주)가야개발을 규탄한다.
— 해인골프장 사업승인취소 재결에 대한 (주)가야개발 재결취소 소송에 관한 우리의 입장

94년 12월 24일, 가야산 국립공원 백운리 일대 48만 평의 해인골프장 건설계획이 승인된 이후 주민생존위협은 물론이고 대규모 산림파괴를 야기할 해인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투쟁위와 시민, 환경단체의 연대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골프장 반대 투쟁의 결과 지난 7월 5일 문화체육부는 가야산 국립공원 안에 (주)가야개발이 건설하려고 계획한 해인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가야산을 비롯한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가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이 국민 전체의 공익에 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국민정서 및 변화된 행정의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연환경보호라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므로 해인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문화체육부의 결정은 반이성적 개발논리로 무장한 정부당국의 변화된 사고의 시발이라는 점과 국립공원의 공익성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시민, 환경단체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주)가야개발이 문체부의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고 해인골프장사업계획승인취소재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재기(8월 24일)하였다.

(주)가야개발은 여전히 해인골프장 건설로 인한 고령군 주민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국민정서와 변화된 합목적성"에 위배된다는 문체부의 결정사항에 대해 '도대체 국민정서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행정심판이 국민정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해괴하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막대한 개발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여론쯤이야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는 저급한 자본주의의 논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국립공원이 일개인의 것이 아닌 국민공유자산이며,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는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이다.

우리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주)가야개발의 해인골프장사업계획취소 재결취소 청구소송이 국민기본권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해인골프장 건설계획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아울러 골프장 건설반대투쟁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여 지역주민들간의 분쟁을 조장하고 그 속에서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어떠한 책동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지방세를 높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볼 때 성주군 일대에 심각한 환경파괴를 야기해 지역주민의 생활을 크게 위협할 것이 틀림 없는 해인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려는 성주군은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며, 가야산 일대의 생태계에 엄청난 파괴를 몰고올 백운리 일대 약 150만평 규모의 대단위 종합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주)가야개발은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취소재결 취소청구의 소〉를 취하하라!
- (주)가야개발은 해인골프장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성주군은 가야산 일대의 생태계를 파괴할 가야산 종합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경상북도는 가야산 국립공원을 보존할 중, 장기대책을 수립하라!
-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역 투쟁위와 250만 대구시민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마포 무료노인병원 10월 개원

연꽃마을, 6번째 광명의원…내과·외과·물리치료실등 운영

오는 10월말 연꽃마을은 6번째 노인무료병원인 마포 광명의원(마포구 아현동 96-2)을 개원하게 됐다.

연꽃마을은 지난달 17일 마포구청의 무료노인병원 위탁운영자 공고모집에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전화(이사장 심철호)와 공동으로 참여, 공개경쟁을 통해 노인무료병원 위탁운영자로 최종결정 됐다.

이번에 개원되는 마포광명의원은 연건평 1백40평 규모의 지상3층 건물로 가정의학과, 내과, 일반외과, 재활의학과등의 진료과목과 물리치료실등 노인성 질환 치료와 재활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연꽃마을 노인무료병원인 마포광명의원이 개원되면 전국 6개 연꽃마을 노인무료병원을 이용하는 노인수는 하루 평균 1천 3백명, 1년간 최소 40만명 이상의 노인들이 무료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포광명의원은 이와함께 이곳에 재가노인복지센타와 '경로식당'을 마련, 노인가정방문사업·노인무료급식사업을 통해 마포구 노인들의 사랑방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몇몇 대형병원에서 노인병 클리닉을 개설하고 있지만 저소득층노인들이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꽃마을은 91년부터 꾸준히 노인무료병원을 운영해와 노인건강증진을 통한 노인복지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연꽃마을은 현재 서울광명의원(02-414-6408), 청주광명의원(0431-221-0836), 군포광명의원(0343-54-5617), 대전광명의원(042-634-5820), 안양광명의원(0343-88-6534)등 전국에 5곳의 노인무료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연꽃마을의 여섯번째 노인무료병원 마포광명의원이 들어서게 될 마포구 아현1동 사무소 건물.

폴란드 유학생이 보내온 편지

"눈푸른 납자들에게 법당을"

지난 여름 어학연수차 폴란드를 찾은 김영훈(외국어대 폴란드어과 3년.대불련회원)군이 친구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김군은 편지에서 폴란드불자들의 수행모습을 소개하며 사찰건립에 고국의 불자들이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 김군의 편지를 소개한다.

이곳에 온지도 벌써 한달반입니다. 제가 폴란드어를 배운다는 것 말고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선수행을 한다는 동질감에 마치 한국에 있는것처럼 편안합니다.

지금은 결제기간으로 저녁이면 수십명의 눈푸른 불자들이 목석같이 앉아서 화두를 들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은 이곳에서 행자생활을 2년이나 했던 도반의 수계식이 있어 무척 분주했습니다. 이곳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행자를 지망하고 스님이 되어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곳에는 폴란드의 '피와'라는 도시에서 온 불자들이 있습니다. 모두들 수행의 높은 뜻은 가지고 있지만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피와'는 작은 도시이지만 부처님법을 좇는 불자들이 수십명에 이르러 자신들의 절을 마련하기로 발원했답니다. 5년전부터 사찰건립불사를 추진했으나 4백만원(미화 5천달러)에 가까운 돈을 모으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아직도 수행도량이 없어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국의 불자들 가운데 인연이 닿아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의 현지인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접하고 보니 제가 적극 돕고 싶지만 힘이 되어주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항상 편안하십시오. 연락처 서울: 02-542-3641(박성은)

식차마나니 수계법회

범어사서…예비 비구니 188명 신청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은 지난 20, 21일 양일간에 걸쳐 범어사 대성암에서 식차마나니(式叉摩那尼) 수계 산림법회를 실시했다.

종진(해인사 율원장) 보성(송광사 율원장) 성우스님등이 서류심사위원으로 나선 이번 수계법회에는 사미니계를 수지한지 4년이 경과한 전국의 예비 비구니 1백88명이 신청했다.

이날 계를 수지한 식차마나니들은 오는 10월 비구니계를 받게된다.

금년부터 모든 절차를 여법하게 진행한 식차마나니법회는 세계 불교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실시하는 수계의식이다.

'둥지 소년의 집' 완공

대부도 쌍계사

대부도 쌍계사(주지 법현)가 '둥지 소년의 집'을 완공, 그간 사찰의 좁은 방에서 지내던 고아 소년소녀들이 새집을 갖게 됐다.

쌍계사에는 20여명의 어린이, 중고생들이 법현 스님의 보살핌 아래 살아 왔으나 방이 좁고 학교와 거리가 멀어 매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본지 15호 14면참조〉

'둥지 소년의 집'은 8개의 방과 법당 거실등 시설을 갖추고 10월10일 오전 11시30분 개원식을 갖는다.

건설계획 철회촉구

가야산골프장 저지위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저지 공동대책위원회등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각 단체들은 지난 16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주)가야개발의 해인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취소재결에 대한 재결취소소송을 강력히 비난했다.

해인사 장경각 지붕 파손

빗물 새 대장경판 훼손 위기…전면보수 시급

고려팔만대장경판(국보 32호)을 보관하고 있는 국보 52호 해인사 대장경각의 지붕 기와가 파손돼 새어든 빗물로 대장경판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18일 해인사와 합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장마와 태풍으로 장경각 지붕이 5군데나 파손됐으며 이 건물 뒤쪽 법보전의 지붕도 기왓장이 깨져 비가 오면 빗물이 안으로 새고 있다는 것이다.

해인사측은 지난 2일 합천군과 문화재관리국에 보수를 요청했으나 문화재관리국측은 2주일이나 지난 20일 뒤늦게 해인사에 도착, 피해조사에 들어갔다.

문영빈 문화재전문위원등 조사반은 "장경각입구 수다라장 지붕의 기와는 부분보수를 하면되나 뒤쪽 법보전지붕 기와는 균열이 여러 곳에 나 있어 전면보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해인사의 한 스님도 "지난 79~79년에도 두차례 보수공사를 실시했으나 지붕의 서까래만을 교체하는데 그쳐 매년 태풍이나 장마 때면 비가 건물안으로 새고 있다"면서 "땜질식 보수보다는 지붕 부분의 전면적인 공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찰문화재 환경법 보호대상"

서울지법, 봉은사 판례…범어사·선암사도 적용될듯

자연환경뿐 아니라 문화재등 역사적 환경도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의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1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16일 (주)신성이 서울 봉은사(주지 무상)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 이의신청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성측이 19층으로 지으려는 건물의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적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금지시키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 9조를 고려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봉은사 관계자는 "신성측이 건립하려는 건물은 구청에서 허가 잘못이 인정되어 이미 원인무효가 된 상태다"고 밝히고 "이번 서울지법의 판결 또한 문화재등 역사환경권 인정은 환영하지만 15층 건물도 봉은사법당보다 높아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화재법에는 문화재에서 1백m이내에는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센타를 건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봉은사 판례는 최근 사찰주변 건물 신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범어사, 선암사 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화어린이집 기공

제주 법화사

제주 법화사(주지 시몽)는 지난 18일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범종각 및 연화어린이집 기공식을 봉행했다.

법화사가 건립하는 연화어린이집은 총면적 3백92평 2층규모로 내년 3월 개원한다.

법화사는 또한 1만관 청동범종과 12평규모의 범종각을 금년말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구독신청: 737-0693

납골제도 공청회 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29일 총무원서

불교계 납골 제도 정착을 위한 공청회 '불교납골 어떻게 할 것인가'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주관아래 오는 29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 1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시흥영각사 주지 대몽현법 스님의 주제발제와 한마음선원 금왕지원 주지 무애스님의 사례발표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및 화장납골제도 정착, 묘지 및 매장에 관한 정부의 법률 개정안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게 된다.

'고속철 경주노선' 정부 재검토

조계종 '도심관통 백지화 요구' 성명서 발표

경부고속철도 경주도심 통과 노선계획이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이홍구총리는 지난 19일 주돈식문체부·오명건설교통부장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경주도심 통과문제를 둘러싼 각계의 노선안을 면밀히 검토, 정부안을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불교계, 학계 등의 조사와 여론을 수렴하여 개발계획안을 확정하라"며 "경주도심관통 고속전철 노선을 전면 백지화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 18일 불국사, 경주경실련, 정토법당, 부처님마을, 경주YMCA등 10여개 경주지역 단체 인사들은 경주문화원에서 '경주를 사랑하는 연대모임'을 발족, 경주 고도보존법 제정등 고속철 경주통과 문제와 개발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불교재가회의와 재가연합도 경주고속전철 경주통과 반대운동을 펼치기 위해 대책위 구성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 등 5개 시민환경단체도 19일 고속철도의 경주통과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건설교통부는 고속전철의 경주 우회 외곽노선을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의정부 사암연 창립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윤)가 지난달 29일 창립됐다.

의정부산하 40여 사찰주지스님들은 이날 쌍용사 주지 김도윤스님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무차법회, 장애인돕기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중리종합사회복지관 삼성전자 지원단체로

중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홍스님)이 삼성전자의 '작은나눔 큰사랑운동'의 지원단체로 선정됐다. 삼성전자의 가전제품을 사고 그 후원쿠폰을 중리종합사회복지관에 보내면 그 수익금이 복지관의 후원금으로 쓰여지게 된다.

자비의 전화 5년 통계자료집 발간

상담내용 부부·이성·종교문제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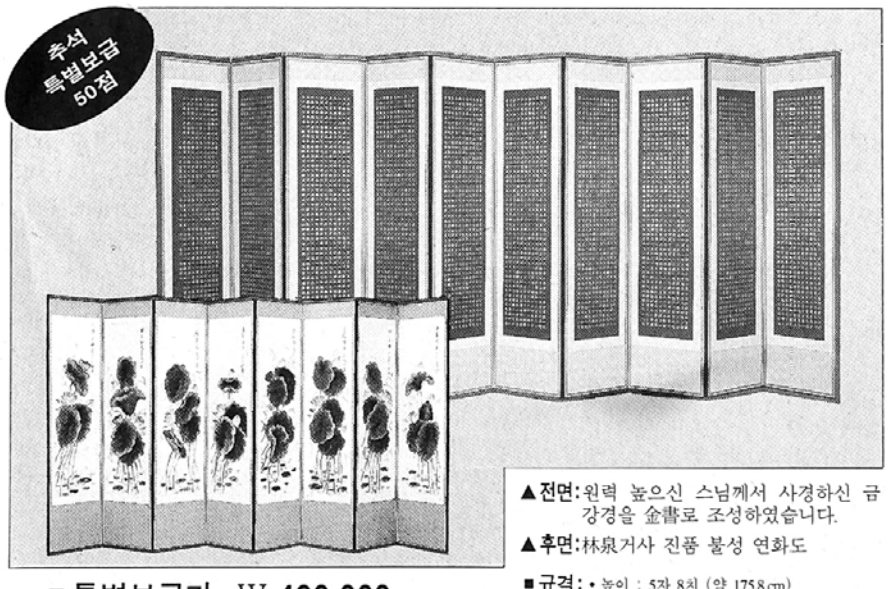
24시간 전문상담기관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스님)가 지난 5년동안의 상담현황을 분석한 통계자료집에 의하면 부부문제에 대한 상담이 전체의 16.99%인 2천8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비의 전화는 총 1천7백45명의 상담원이 5년간 총 1만4천9백25건의 상담활동을 펼친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1일 평균 14건의 상담이 이루어진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상담자의 성별분석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는 성문제가 전체의 40.9%를, 여성의 경우는 배우자의 외도가 36.6%로 상담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통계조사에서는 부부문제에 이어 이성문제가 14.9%, 종교문제 14.74%, 가정문제 13.98%, 청소년문제 12.58%, 인생문제 6.87%, 정신건강 5.43%, 정보제공 3.85%, 사회문제 6.86%, 신체건강0.91%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모시는 인연만으로도 큰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금강경 10폭 병풍
불자라면 누구나 원하시는 원력병풍 – 금강경
표구비만으로 드리는 추석특별보급으로 가격부담없이 가까이 모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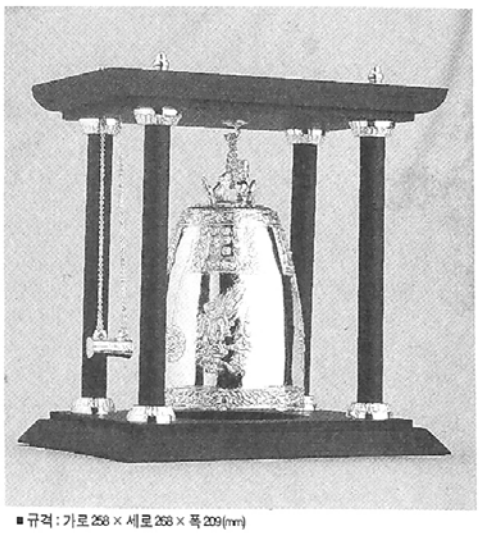
▲전면: 원력 높으신 스님께서 사경하신 금강경을 金書로 조성하였습니다.
▲후면: 林泉거사 진품 불성 연화도
■규격: • 높이 : 5자 8치 (약 175.8cm) • 폭 : 14자 (약 424.3cm) • 재질 : 고급스기목/양면 고급비단/스모사 특후지
■특별보급가 ₩ 490,000
(현금 및 은행신용카드)
※참조:후면에 팔상록(석가세존 일대기)를 원하시면 별도로 꾸며드립니다.
구입문의 기획제작 三田佛事 (02) 732-6095 732-6096
• 클로버서비스전화 080-023-1101(요금 수신자 부담)

운명의 길을 열어주는
보살기(氣)띠부적 메달
천운을 부르는 천지인의 만남
띠부적이란?
인간은 누구나 12간지에 따라 12년을 하나의 주기로 운명의 변모를 합니다.
12년마다 되돌아오는 자신의 운명지수의 변동을 인연보살 천지인의 氣로써 천운의 길로 돌려놓는 불가사의한 부적입니다.
각 띠별로 자신의 궤도를 미리 알아 매사를 성사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띠부적메달견본
• 뒷면 (띠별12지상)
• 앞면 (보살상)

(子)쥐띠(한월보살) 甲子生, 丙子生, 戊子生, 庚子生, 壬子生		(午)말띠(여의륜보살) 庚午生, 壬午生, 甲午生, 丙午生, 戊午生	
(丑)소띠(천수보살) 乙丑生, 丁丑生, 己丑生, 辛丑生, 癸丑生		(未)양띠(대세지보살) 辛未生, 癸未生, 乙未生, 丁未生, 己未生	
(寅)범띠(대륜보살) 丙寅生, 戊寅生, 庚寅生, 壬寅生, 甲寅生		(申)원숭이띠(십일면보살) 壬申生, 甲申生, 丙申生, 戊申生, 庚申生	
(卯)토끼띠(수월보살) 丁卯生, 己卯生, 辛卯生, 癸卯生, 乙卯生		(酉)닭띠(군다리보살) 癸酉生, 乙酉生, 丁酉生, 己酉生, 辛酉生	
(辰)용띠(관세음보살) 戊辰生, 庚辰生, 壬辰生, 甲辰生, 丙辰生		(戌)개띠(정취보살) 甲戌生, 丙戌生, 戊戌生, 庚戌生, 壬戌生	
(巳)뱀띠(관자재보살) 己巳生, 辛巳生, 癸巳生, 乙巳生, 丁巳生		(亥)돼지띠(아이타불) 乙亥生, 丁亥生, 己亥生, 辛亥生, 癸亥生	

■순은 (99.9%) 약7돈(26.25g)
■가격 ₩ 48,000 (체인 포함)
기획제작 三田佛事 (02) 732-6095 732-6096
• 클로버서비스전화 080-023-1101(요금수신자부담)

신라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행운의 황금종
국보 제29호 에밀레신종


■규격 : 가로 258 × 세로 268 × 폭 209(mm)

신비롭고 영험 있는 에밀레종!
종소리가 맑고 청아하여 그 긴 여운은 영원으로 이어져 고뇌하는 이에게 희망과 마음의 평온 그리고 행운을 드릴 것입니다.

■보급특가 ₩ 148,000
기획제작 三田佛事 (02) 732-6095 732-6096
• 클로버서비스전화 080-023-1101(요금수신자부담)

가을의 시골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자연과 대화로 가을이 익고…

흙냄새가 물씬 풍기는 시골에 가는것이 나의 생활에 한 부분이 되었다. 시골을 생각할때면 언제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앤돌핀'이 여기저기서 막 솟아오르는 듯 하다.

시멘트벽에 갇혀 숨막히게 허덕거리다 달려간 시골에서의 풀내음, 지저귀는 새, 여기저기 얼굴을 내밀고 나를 반기는 야생화 밤에만 활짝피는 박꽃과 달님의 어울림은 도심의 생활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동화의 나라'가 되어 바로 내눈앞에 펼쳐진다.

쏟아지는 별빛을 보면 나도 모르게 별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곤 깜짝 놀란다.

한알의 씨앗이 떨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연의 아름다움 앞에서는 어떤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여름 무분은 기독교신자이고 한분은 독실한 불교신자 이신 시집쪽의 세형제분을 모시고 시골을 갔다. 이때 허름을 벗은 뱀의 껍질이 왼두막 바로 천장위에 매달려 있었다.

"뱀이야"하고 소리를 지르니 불교신자이신 시이모님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면 안된다"하시며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계속 불경을 외우시며 "모든 것이 말을 알아듣는다"고 함부로 말씀을 못하게 하셨다. 절에가면 행주를 삶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려주었다.

이제 가을이다. 모든 풀, 나무, 하물며 돌까지도 파란 하늘아래서 나와 서로 이야기를 하며 나를 반기는 것 같다.

가을의 자연앞에서 사람들만이 서로 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인간못지않게 그들 나름대로의 질서와 예의가 있는 것을 느낀다. 자기만 잘나서 잘사는 것 같은 물욕에 젖은 현대인들에게 정신적인 교훈이 바로 자연과의 대화인것 같다.

가장 정직하고 순수한 모든 자연앞에 숭고해질 숨가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나는 자연의 숨결을 들려주고 싶다.

손희옥 〈서양화가〉

주부신행담

작지만 큰 행복 ⑤

남편의 사업실패는 우리가족에게 또다른 커다란 아픔을 가져다 주었다. 사업실패로 인해 전에 살던 집에서 전셋집으로 자리를 옮겨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을 때였다.

어느날 뜻하지 않게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발생했다. 그때 나는 넷째 아이를 임신중이었고 더구나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차였다. 당연히 욕심을 잃지는 않았지만 넷째 아이는 그로 인해 유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불행은 서곡에 불과했다. 그렇게 자상하시던 시어머니께서 가스중독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신 것이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가슴아픈 일이었다.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다. "우리 어머니 극락왕생하게 해 주세요"라고.

그렇지만 마음으로 비는 것으로만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한이 풀리지 않았다. 방 한켠에 빈소를 모셨다. 그리고 공양 올릴 때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반야심경을 봉독했다. 이것으로 내 죄를 용서받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인가는 처음에는 무서워하고 꺼려하던 아이들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반야심경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장남은 지금 육군대위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다. 3사관학교에 가기전까지 막노동에 포장마차에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이런 모습을 안쓰러워하는 내 위로에 그 녀석은 늘 이렇게 말했다. "아들한테 미안한게 어디있어요. 스님말씀대로 우리 가족은 모두 동업중생인데요."

또 둘째 딸아이는 장남이 군인이라서 결혼식을 대구 2군사령부 법당인 두열사에서 올릴 수 있었는데 이때처럼 내가 부처님 품안에 있다고 느꼈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

막내 아들녀석도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지만 그 어려웠던 집안살림에서도 구김살 없이 자기의 몫을 살아가며 이만큼 성장한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대견스러울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 모두가 부처님을 믿고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부처님의 가피야말로 재상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다고 생각된다.

나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너희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남을 이기고 출세하라는 말은 아니다. 누구에게든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이 돼야 한다."

사노라면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많고 마음에 상처도 입지만 그럴때마다 나는 '내가 전생에 큰 빚을 졌구나'라고 생각하며 선업을 이승에서 다 짓고자 독경과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 법같은 어려운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이다.

결혼한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이렇듯 자랑스럽게 장성한 아이들과 한때는 이겨내기 힘든 고난에서 지금은 건설회사의 어엿한 중견간부가 된 남편은 더러는 얼룩도 졌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한 편의 내 삶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준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더욱이 지금까지 식구 누구하나 병원출입을 해본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 부처님께 더없이 감사드린다.

사노라면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많고 마음에 상처도 입지만 그럴때마다 나는 '내가 전생에 남에게 큰 빚을 졌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전생에 조금밖에 짓지 못한 선업을 이승에서 다 짓고자 독경과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모든 기도와 정성은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때에 서서히 원력이 되어 다가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무엇을 얻기 위해 부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어떤 위기상황에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더욱 아닐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희망이고 심적 위안일 것이다.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나는 부처님께 권안히 기댈 수 있었고, 그 믿음은 어려운 생활을 차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힘을 주었다. 또 사고를 당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부처님의 은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또한 평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어온데 따른 흔히 말하는 신앙심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부처님은 내게 바로 이런 소중한 삶의 지혜와 용기를 주셨으니 어찌 이것을 작은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일심히 열심히 기도하고 행하며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불자님들 성불하세요.

이 영명화 (대구시 중구 삼덕동)

♦ These(Pleasures are) to me calamities, boils, misfortunes, diseases, sharp pains, and dangers ; seeing this danger(originating) in sensual pleasures,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이런 감각적 즐거움은 나에게 있어 재앙이며, 불행이며, 병이며, 극심한 고통이며, 하나의 위험이다. 이 모든 욕망의 대상에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Both cold and heat, hunger and thirst, wind and a burning sun, and gad-flies and snakes - having overcome all these things,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추위와 더위,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바람과 태양의 열기, 모기떼와 독사들, 이런 것들을 능히 참고 견디며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As the elephant, the strong, the spotted, the large, after leaving the herd walks at pleasure in the forest,

영어로 배우는 경전 — 숫타니파타 ⑪

even so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힘센 얼룩코끼리가 무리를 떠나 숲속에서 한가로이 노닐듯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For him who delights in intercourse (with others, even) that is inconvenient which tends to temporary deliverance ; reflecting on the words of (Buddha) the kinsman of the Adikka family,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모임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잠시도 영혼의 휴식에 이를 겨를이 없다. 태양의 후예(부처)가 하신 이 말씀을 명심하고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adikka 해, 태양 (빠알리어)
*kinsman 남자친척
*calamity (지진, 홍수등의)재난, 참화

한명우 기자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침대전문 회사 —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길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제품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드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 매트리스 사용 —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배로 견딜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GRAND FANTASIA

꿈의 나래를 편다 그랜드침대

• 본사: 경기 파주군 광탄면 마장2리 180-18
• 전화: 0348-945-2233 / 팩스: 0348-945-9607

생활속의 불교 ⑫

흙 냄새 모르는 영원한 올챙이

순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모여 앉아 험난했던 길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을의 길은 길이 아니다. 오직 열반에의 길만이 길이다."

진리의 길, 그것은 열린 마음의 길이다. 고정관념이라는 철벽을 뚫은 뒤에나 보이는 길이다. 마음을 비워야 볼 수 있는 길이다. 마음이 닫히면 길도 막힌다.

선입견·편견·소견으로 꽉 들어찬 마음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수행을 한다 해도 길은 보이지 않는다. 닫힌 마음으로는 결코 길을 볼 수 없다.

부처님께서 마을의 길은 길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은 형상에 집착해 온갖 관념으로 가득한 머릿속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일러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길은 본래 열려 있다. 누구에게나 길은 훤히 뚫려 있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함이 안타까운 일인 것이다. 가닿은 우리 자신이 장님인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 사물을 대할 때 '자기'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 그러기에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 되고 만다.

코끼리를 놓고 벽 같다, 기둥 같다, 뱀 같다 라며 서로 우겨대는 장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이다.

웅덩이 속의 올챙이가 개구리에게 물에 대해서 물었다. 물에 올라가면 무엇이 보이고 흙 냄새는 어떻더냐고 물었다. 개구리가 제주껏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나 올챙이는 그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 물에 대해 상상은 할 수 있어도 흙 냄새를 알 수는 없는 법이다.

올챙이가 물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는 나중에 꼬리 빼고 다리가 생겨 제발로 웅덩이를 벗어났을 때 찾아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골백번 듣는다 해도 스스로 마음을 열고,



비우고, 길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길을 볼 수는 없다. 물론 길을 상상할 수는 있다. 지도를 펴놓고서 백두산도 가고 중국·인도도 갈 수 있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길은 스스로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만 갈 수 있는 길로 다가선다.

남이 일러준 길은 길이 아니다. 상상의 길일 뿐 실제의 길은 아니다. 부처님 말씀이 가득한 경전은 다만 지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보는 실제 상황은 스스로 마음을 열고 고정관념이라는 철통을 깨는 방법으로서만 가능하다.

부처님 법이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somethingmuch무변하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다. 열 번 아니라 백 번을 보더라도 내가 집어먹을 줄 모른다면 어디 가서 불법을 찾았다 할 것이며, 어디 가서 길을 발견했다 하겠는가. 스스로 행함이 아니라면 부처님께서는 정법을 한 마디도 설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가장 길다운 길, 자유의 길, 진리의 길, 해탈의 길은 닫힌 마음을 여는 데서, 고정관념을 비우고 천진의 눈·귀로 사물을 대하는 데서 시작된다. 길을 찾으려거든 한생각 돌려서 덕지덕지 달라붙은 고정관념부터 떼어내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자기'라는 관념에 매달려 제 좁은 소견을 애지중지하면서 그것을 보탬 있게 사는 길이라 믿는다면 길은 영원히 보이지 않을 것이다.

끝내 흙 냄새를 맡아보지 못하고 올챙이로 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협찬 : 지용권, 김종숙, 지은희, 최순근, 황종호, 홍리장